



캐나다, G7 첫 금리인하... 선진국 피벗 촉각 2



존림 삼바 대표 "수주 문의의 2배 늘어... 6공장 검토"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美 전역 발로 뛰는 JY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

### 삼성 신경영 31주년 '작심 출장'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전역을 도는 작심(作心) 출장에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삼성 호암상 시상식'이 끝난 직후 출국했다. 출장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계획이다. 고(故) 이근희 삼성 전대회장이 1993년 6월 7일 선언한 '신경영' 31주년을 계기로, 최근 위기에 빠진 삼성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면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스베스트베리(Hans Vestberg) 버라이즌(Verizon)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차세대 통신분야 및 갤럭시 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장과 베스트베리 CEO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술 및 서비스 방안 △차세대 통신기술 전망 △기술혁신을 통한 고객 가치 제고 전략 △버라이즌 고객 대상 안드로이드 에코시스템 확대 협력 △하반기 갤럭시 신제품 판매 확대 협력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갤럭시 신제품 관련 공동 프로모션 및 버라이즌 매장 내에서 갤럭시 신모델의 AI기능을 체험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미팅에는 △노태문 모바일 경험(MX) 사업부장 △김우준 네트워크사업부장 △최경식 북미총괄 사장 등이 배석했다.

미팅 후 이 회장은 “모두가 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잘 해내고 아무도 못하는 사업은 누구보다 먼저 해내자”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5대 매출처이자 글로벌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의 협력을 강화해 차세대 통신 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단말기 분야에서 올해 초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를 출시하며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하는



송영록 기자 syr@

베스트베리 버라이즌 CEO 만나 차세대 통신 등 협력 방안 논의

정관계 인사 등 릴레이 미팅 예정 엔비디아·오픈AI CEO 회동 주목

'퍼스트 무버'로서의 위상을 키워가고 있다. 글로벌 통신 업계는 지난 10년간 '비디오 콘텐츠'가 통신 산업 발전을 이끌어 온 것처럼, 향후 10년은 'AI'가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삼성의 '갤럭시 AI'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 회장은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과 만남에 이어 삼성의 미래 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미국의 주요 AI·반도체·정보기술(IT)·통신 관련 기업 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릴레이 미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AI 시장을 이끄는 엔비디아, 퀄컴, AMD,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구글 등 주요 미국 업체 CEO들과도 회동을 가질지 주목된다. 최근 대만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2024'에 주요 AI 업체들이 출출동했지만, 삼성전자는 조연에 머물렀다.

대형 인수합병(M&A) 행보에도 관심이 크다. 세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냉난방공조기업 레녹스와 합작법인을 만들어 북미 공조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한 것 정도가 눈에 띄는 행보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에서 이어진 초격차 경쟁력을 되찾고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충일 '외로운 태극기' 제69회 현충일인 6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태극기가 한 세대에만 게양돼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엔비디아, 시총 3兆달러 돌파... 애플도 제쳤다

2兆달러 달성 이후 불과 3개월 소요 MS 이어 세계 2위 기업으로 도약 S&P500·나스닥 사상 최고치 견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기업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5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약 4119조 원)를 돌파했다. 엔비디아는 시총에서 애플도 꺾고 세계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관련기사 17면

이날 미국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5.16% 급등한 1223.40달러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엔비디아 시총은 약 3조120억 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조 달러대를 뚫었다. 엔비디아 열풍에 뉴욕증시 벤치마크인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5월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1년도 안 돼 올해 2월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1조 달러를 추가하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총 3조 달러 돌파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애플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반면 애플은 10일 자사 연례 개발자회의인 '세계개발자회의(WWDC)'를 앞두고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6개월 만에 시총 3조 달러를 간신히 회복했지만, 엔비디아의 기세에 밀려 시총 2위 자리를 내줬다. 엔비디아는 1위인 MS(3조1510억 달러)와의 격차도 약 1400억 달러로 좁혔다.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가 넘는 점유율을 장악한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달 22일 2025 회계연도 1분기(2~4월) 실적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29% 가까이 올랐다. 실적 호조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매출 전망치를 제시한 것은 물론 10일 10분의 1의 주식 액면분할을 앞둔 것이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액면분할은 가격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주가 상승 재료로 꼽힌다.

여기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밀어 올렸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주 대만에서 열린 테크엑스포 '컴퓨텍스 2024' 기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 '루빈(Rubin)'을 처음 공개했다. 3월 새로운 AI 칩 블랙웰의 로드맵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신제품을 언급한 것이다. 황 CEO는 그러면서 “앞으로 매년 새로운 AI 칩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출시 일정을 약 2년마다 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인텔이나 AMD 등 경쟁사들이 AI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엔비디아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격차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멜라우스리서치의 벤 레이체스 애널리스트는 “블랙웰에 대한 전망과 향후 출시될 루빈 등을 고려할 때 향후 2년간 엔비디아에 크게 대항할 회사는 아무도 없다”고 단언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청년층 마약범죄 예방 해결책을 고민하던 정부가 중독 재활 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전환한다. 마약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던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고수할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은 교화가 매우 힘들다는 측면 또한 고려했다. ▶관련기사 5면

대검찰청 초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거쳐 인천지검장을 맡고 있는 박재익(사법연수원 29기) 검사장은 6일 본지에 “‘사법-치료-재활연계모델’이 사범 사업 중이기는 하나 확정된 정책 방향”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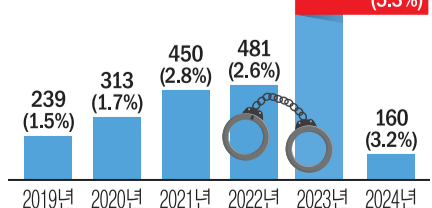
## 10대 마약사범, 1년새 3배 ↑ ... '처벌·치료 병행' 정책 선회

말했다. '적발·단속'에서 '치료·재활' 병행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이다. 박 검사장은 “사범 사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기 단계여서 정책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검사가 일단 기소를 중지시켜 놓은 뒤 중도 포기나 탈락 등 재화에 실패할 때 비로소 기소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보호관찰 △보건복지부 치료감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재활을 통해 치료에 성공하면 프로그램 중료하고 사회에 복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서 지속 재활을 지원하게 된다.

형사처벌 집중 댄 전과자 양성 우려 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사범사업 중도 포기 댄 기소... 성공 시 사회로 문제점 보완 후 정식사업 전환 전망

마약류 사범 10대 단속 인원·비용 (단위: 명) ※ ( )는 비율 ※ 2024년은 3월까지 ※ 출처: 법무부, 대검찰청



이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불법적인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보다 50.1% 급증했다. 이 중 20·30대가 1만505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1~3월 석달간 적발한 마약사범(5040명)에서 20·30대(3113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61.8%에 달한다. 10대 마약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1551명으로 전년 동기(463명) 대비 3배 이상 폭증했다.

현재 정부가 사범 사업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기본으로 한다. 중독 전문가·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 등을 판단한 뒤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보호관찰소 약물 모니터링까지 결합함으로써 중독자의 안전한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돕는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인천지검 단기 개입 프로그램은 △자기 효능감 및 비전 등을 탐색하는 '집중 프로그램' △약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문가의 강의' △회복자 상담가와 상담을 통한 '동기 강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익경 기자 ekpark@

〈통화정책 전환〉

# 4년3개월만에 '피벗' 나선 캐나다... G7 첫 금리인하

## 기준금리 25bp ↓ 年4.75%

캐나다가 주요 7개국(G7) 중에서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피벗(통화정책 전환)' 물꼬를 트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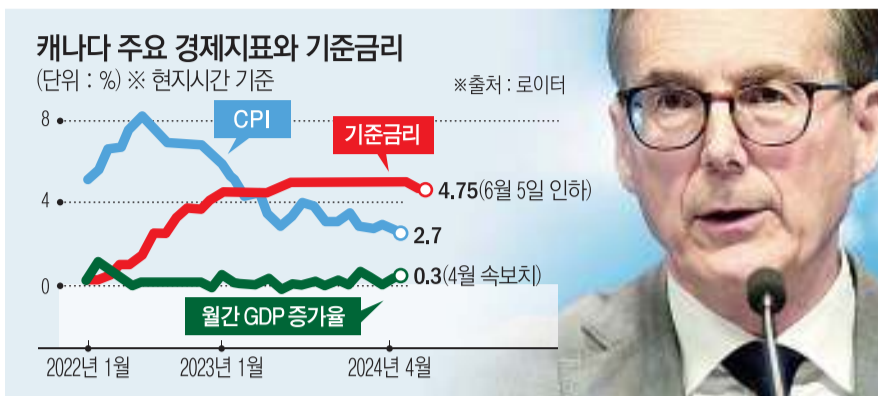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BOC)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연 5.0%에서 4.75%로 25bp(bp=0.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년 3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다. 이는 4년 3개월 만에 첫 금리 인하다.

캐나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자 2022년 3월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주요국 중앙은행으로서 처음으로 기존 금리 인상 폭의 두 배인 50bp 인상을 단행했으며 지난해 7월까지 6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왔다.

## 인플레이·경기 둔화로 선제 결정 7월 추가로 내릴 가능성 열어놨 '고용부진' 미국도 인하 기대감

캐나다가 이날 피벗에 나선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있다. 캐나다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022년 6월 8.1%(전년 동기 대비)까지 올랐으나, 4월 2.7%로 둔화했다. 이는 캐나다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보다는 여전히 높지만,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이다.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 총재는 "(경기 연착륙을 위한) 활주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기둔화세도 피벗을 뒷받쳤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1.7%로, 캐나다은행의 전망치(2.8%)를 크게 밑돌았다. 실업률도 4월 6.1%로 2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티프 맥클럼 캐나다은행(BOC) 총재가 5일(현지시간)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4년 만의 첫 기준금리 인하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 지나긴 긴축 기조가 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이에 캐나다은행은 7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 맥클럼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2% 목표까지 지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계속 커진다면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다만 우리는 회의 때마다 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캐나다가 주요국 중앙은행보다 선제적 통화정책을 펴왔다는 점에서 캐나다은행의 결정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여겨졌다. 이에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이웃 나라 미국에 쏠리게 됐다. 이미 멕시코와 스위스, 스웨덴이 기준금리를 내린 상태인 데다 미국 민간 고

용지표가 부진했다는 점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이 이날 발표한 5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2000명 증가로, 시장 전망인 17만5000명을 밑돌았다. 증가 폭은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여전히 미국 내에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연준이 올해 단 한 차례만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된다면 캐나다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미국과의 금리 차가 커지게 되면 캐나다달러 약세와 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을 부추겨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캐나다은행의 입장이다. 맥클럼 총재는 "미국과의 금리 차에서 비롯된 한계는 있다"며 "그렇다고 지금 그 한계에 근접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현대경제연구 "수출주도로 올 경제 0.5%p 오른 2.7% 성장"

### 내수회복 속도 더딜 것으로 전망 물가상승률 2.7%로 기준과 같아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수출 성장엔 지속되는 반면, 내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2024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 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예상했다. 1월에 전망했던 2.2%에서 0.5%포인트(p) 올린 것이다. 이는 국내 국책·금융연구기관, 해외 기구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국내 국책·금융연구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은행·산업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 2.5% △한국개발연구원(KDI) 2.6% 등으로 예상했다. 해외 기구는 △국제통화기금(IMF) 2.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 등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높게 전망한 곳은 2.8%를 제시한 JP모건이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4월 산업활동동향과 5월 수출이 예상보다 좋았다"며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으면 2.7%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1월 전망과 비교했을 때 민간 소비를 2.2%에서 1.7%로 대폭 낮췄다. 건설투자는 0.5%에서 0.1%로 하향 조정한 반면, 설비투자는 1.5%에서 3.8%로 올렸다. 연간 경상수지 규모는 520억 달러에서 6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수출증가율은 9.3%로 동일한 반면, 수입증가율은 2.8%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수출 주도의 성장 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까지 수출-내수 경기의 격차가 지속될 것인 전망이다.

연구원은 "수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그동안 재고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 확대에 대응했던 부분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생산 능력 확충을 위해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수(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거나,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더라도 회복속도의 가속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은 대외 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다"며 "예기치 못한 글로벌 경제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다시 2%대 초반의 경제 성장 경로로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존 전망과 같은 2.7%로 예상했다. 상반기(3.0%), 하반기(2.4%) 전망도 동일했다.

연구원은 "상반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들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제유가, 국제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시장에 특별한 상승 요인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 측 물가 상승 압력의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점을 주목했다. 연구원은 "서비스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는 점 등으로 고물가가 빠르게 잡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장애인고용, 함께하는 내일

장애인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장애인 고용 기업의 성공을 위해,  
장애인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장애인서비스**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이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서비스**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 분단위로 쪼갠 30여개 일정... '제2 신경영' 내놓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경영' 31주년을 계기로 미국 전역을 도는 작심 출장에 나선 건 최근 직면한 위기 상황이 '신경영 선언' 이전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번 출장에서 뉴욕과 워싱턴DC 등 동부는 물론 서부의 실리콘밸리까지 모두 쟁길 계획이다. 특히 세계 최대 이동사 버라이즌을 시작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관련 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정관계 인사들과 릴레이 미팅에 나선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회장의 이번 미국 출장은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는 물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일 분단위까지 나누는 빡빡한 일정 30여 건이 6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미팅을 가진 버라이즌은 글로벌 통신 사업자 중 삼성전자의 최대 거래 업체다. 두 회사는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걸쳐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2020년 체결한 '5G를 포함한 네트워크 장비 장기공급 계약'은 7조9000억 원 규모로,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으로 화제를 모았다.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갤럭시 단말기부터 네트워크 장비까지 광범위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데에는 삼성전자의 앞선 기술력은 물론 이 회장과 한스 베스트베리 CEO의 오래되고 각별한 인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회장과 베스트베리 CEO는 2010년 스페인에서 열린 'MWC 2010'에 각각 삼성전자 부사장과 스웨덴 통신기업 에릭슨 회장 자격으로 나란히 참석한 것을 계기로 10년 이상 친분을 이어오고 있다.

**美 전역 훑는 '강행군 일정'**  
최대 이동사 '버라이즌' 시작으로 AI·반도체 협력사 릴레이 만남 사업장 점검...의회·정부 미팅도

**"신경영 선언 전보다 더 심각"**  
'주력' 반도체 지난해 15兆 적자 노조 첫 파업 선언... 악재 잇따라 위기 뚫고 '승어부' 이룰지 관심

이 회장은 출장 기간 반도체와 가전 공장 등을 가동하고 있는 미국 사업장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지 의회의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주요 고객사들과의 미팅도 예고돼 있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 회장의 만남이 이뤄질지 업계의 관심이 크다.

이번 출장을 계기로 이 회장이 선대회장의 '신경영' 뒤를 잇는 메시지를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7일은 고(故) 이근희 삼성 선대회장이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로 대변되는 이른바 '신경영 선언'을 한 지 31주년이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최근 상황은 심상치 않다.

먼저 글로벌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다. 주력이던 반도체 산업은 작년 15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게다가 AI 시장 확대에 수요가 급증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응이 늦어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뺏겼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후발업체인 인텔에도 쫓기는 샌드위

치 신세다. 스마트폰 분야에서는 출하량 1위를 되찾았지만, 프리미엄 폰에서는 아이폰에 크게 밀리는 형국이다. AI를 앞세워 TV와 가전 사업의 실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1분기 영업이익에서 경쟁사 LG전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21일 이례적인 '원포인트' 인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 수장을 전영현 부회장으로 전격 교체한 것도 삼성전자의 위기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첫 단체 행동으로 7일 연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세계 관계지는 "삼성 전반에 걸친 위기감은 아버지를 능가하겠다는 '승어부(勝於父)'를 다짐한 이재용 회장 앞에 놓인 과제"라며 "이 회장은 삼성의 초격차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이재용(오른쪽) 삼성전자 회장이 2021년 11월 버라이즌 본사를 방문해 한스 베스트베리 CEO와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 한미일, 제4차 경제안보대화 핵심광물 공동투자 방안 모색

**'조기경보 연계' 긍정적 평가**  
핵심신기술 공동연구 속도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5일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 다카무라 야스오 일본 국가안보장관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날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작년 2월 이후 세 차례의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온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3국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있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

하며,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핵심신기술 분야의 경우 3국 국립연구기관의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올해 4월 체결된 만큼,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월 출범한 한미일 핵심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국 기술보호법 집행당국 간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에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대 가치(안전·혁신·포용)를 반영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각국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공조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3월 부산에서 열린 제3차 회의에 이은 4차 회의다. 3국은 올해 하반기 중 차기 회의를 개최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일상의 작은 다짐도  
평생의 큰 꿈도  
중요한 건,  
해내는 것보다 해보는 것

## 시작에 힘을 더하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공식모델 김지원

# 尹 “北 도발, 압도적 대응…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것”

##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일반 시민 등 5000여 명 참석  
“한미 동맹 등과 자유·안전 수호  
더 강해져야 통일 한국도 가능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  
순직자 유족, 국가 끝까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최근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추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최근 북한이 오물 풍선 등 대남 도발을 이어가는 것을 규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이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념식에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참석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빈관에 먼저 도착해 국군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했다.

그러면서 “철통같은 대미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한중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고,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

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

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며 “보훈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해 임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돕겠다”고 말했다. 또 “인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

임지겠다”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 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군(軍) 주요 직위자, 중앙보훈단체장, 일반시민 등 5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가유공자 후손과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군무자가 직접 주요 식순에 참여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조부 6·25 참전용사, 부친 공군 중위 전역)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애국가 제창에서는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국가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선도제창자로 참여했다.

‘전우에게 전하는 편지’ 낭독 순서에서는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6.25 참전유공자 이승호 씨가 직접 작성한 편지를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박명호 님)의 손자 박희준 육군 중사가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지난 1월 경북 문경시 화재로 인해 순직한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호 소방교의 유족 등 4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다. 정영인 기자 oin@

## 6~17세 사교육비 5년간 38% 증가... 비만율은 3.5배 급증

(9~17세)

### 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6~17세 아동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타과목 수요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앉아 있는 시간은 늘어난 반면 수면 시간은 줄면서 9~17세 비만율은 3배 이상 높아졌다.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6~17세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2023년 43만5500원으로 37.55%(11만8900원) 증가했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69.0%), 수학(73.9→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34.8%), 사회(8.0→13.4%), 과학

월평균 사교육비 32만→44만원

주당 교육시간, 수학 250분 1위

앉아있는 시간은 524분→635분

스트레스 없는 아동 8.7%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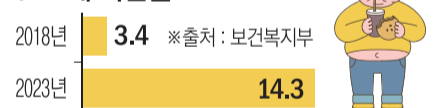
(11.4→18.9%), 예체능(25.7→28.4%) 등 다른 과목이 증가했다. 사교육 시간은 수학(주 250.02분)과 영어(235.86분)가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상급학교진학희망아동은 95.5%에서 85.5%로 10%포인트(p) 줄었지만 △진로 미결정(1.7→6.9%), △취업할 것(1.7→4.2%) △창업할 것(0.2→1.7%) 등이 크게 늘었다.

6~17세 평균 사교육비 (단위: 원)



9~17세 비만율 (단위: %)



비만과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은 증가하고 있다. 3~8세 아동 비만율(12.3%)은 2018년(12.2%)과 유사했지만 9~17세 아동 비만율은 14.3%로 2018년(3.4%) 대비 약 3.5배 급증했다. 아동 체중 연관 지표인 일일 수면시간(8.29→7.93시간) 감소와 주중 앉아있는 시간

(524.01→635.99분) 증가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해석된다. 주 1일 이상 고강도 운동 실천율(38.2→48.1%)은 다소 개선됐다.

아동의 정신건강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적거나 없는 9~17세 아동은 43.2%로 지난 조사와 비교해 8.7%p 증가했고 아동의 우울 및 불안 정도는 1.77점(최대 26점)으로 0.11점 감소했다. 반면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아동(0.9→1.2%) △자살을 생각한 아동(1.3→2.0%)은 각각 0.3%p·0.7%p 늘었다. 주요 스트레스 요인은 숙제·시험(64.3%), 성적(34%), 입시·취업(29.9%), 부모님과 의견 충돌

(29.7%) 순이었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아동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박탈점수는 의식주 생활, 의료 및 건강 등 31개 분야에서 아동이 각각 박탈됐는지 여부를 따진 것이다. 아동의 결핍 지수도 31.5%에서 17.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결핍지수는 아동 생활환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끼니, 여가활동 등의 기회를 충족하지 못한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5753개 아동가구를 대상(방문 면접조사)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 까지 실시됐다.

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

## ‘원전 설계도’ 직원 2명이 무단유출 ... 한전기술 내부 통제 시스템 구멍

SMR 등 ‘영업비밀 2급’ 자료

퇴사자 요구에 출력해서 전달

한국전력기술 직원들이 원자력발전소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퇴사 직원에게 전달하다가 적발됐다. 다만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당장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적 조치 없이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기술은 최근 ‘원자로 설계자료 무단유출’ 관련 특정감사를 받아 원자로설계개발본부(원설본부) 팀장급 직원 2명이 퇴직한 A 씨

에게 각각 영업비밀 자료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한전기술 원설본부는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 내에 있는데, A 씨는 원설본부에 재직하다 같은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이직했다. 연구단지는 국가보호시설로서 외부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돼야 하지만 업무 공간이 혼재돼 출입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직원들에게 찾아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자료와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설계기준서 등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팀장급 2명은 자료를 직접 출력해 제공했다.

원전 설계기준서는 영업비밀 2급에 지정된 자료로, 중요도와 가치를 인정해 ‘특별보호자료’로써 별도 지정해 관리한다.

영업비밀 2급 자료는 내부 직원인 실무자만 파일 열람이 가능하다.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영업비밀유지 서약 △전결권자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두 직원은 절차 없이 무단 유출했다.

한전기술 내부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규정상 영업비밀 2급 자료는 일반 실무자가 사용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별도 통제 없이 출력이 가능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용 권한이 잘못 부여되고 있던 것을 인지한 셈이다.

두 직원은 감사 과정에서 A 씨가 한전기술 재직 당시 업무에 경험이 있고, 현재 연구원에 다니면서도 업무 관련 도움을 받는 등 같은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설계지침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이미 공개된 자료였고, 제공한 다음 날 바로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이들의 행위가 산업발전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A 씨가 해당 자료를 복사·저장했거나 사본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유출 피해에 대한 위험성 등 회사에 심각한 손해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봤다.

한전기술 관계자는 “A 씨에게 직접 자료 삭제 통보했고, 비밀유지 약속서를 받았었다. 만약 자료가 유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는 서약도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유출 의도가 없다고 보고 내부 징계(감봉·경고)로 결론내렸다. 법률자문 결과 자료 유출은 법적으로 위배되지만, 당장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적다는 게 감사실 판단이다.

또 한전기술 내부의 권한 부여 절차와 시스템 미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22년 12월 퇴직을 앞둔 한전기술 직원이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망으로 빼돌린 뒤 기술자문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spes@

# 마약 재범률 35%... 법무부, 중독치료 발 벗고 나선다

**재범 방지 첫 연구용역 맡기고  
보호관찰소 위험 요인도 분석  
마약 조직 내부 고발자엔 감형**

법무부가 마약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재범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마약류 사범 자기 주도적 개인치료 도구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마약 중독 치료에 본인의 의지가 관건인 만큼 마약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치료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초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에도 나선 바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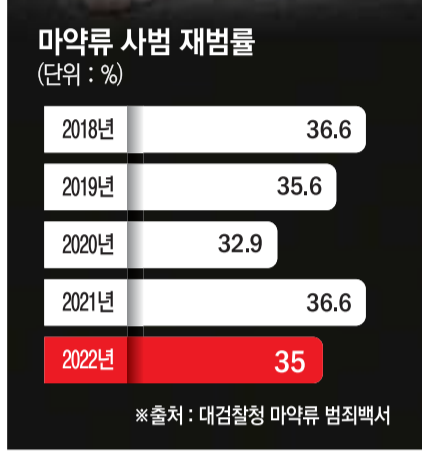
자의 내·외부적 재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대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는 마약사범은 크게 세 종류다.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중료 △보호관찰 조건부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마약류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5.3%에 달한다. 마약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달 내 '2023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전체 마약사범 숫자가 급증한 만큼 재범 인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현장이나 간담회에서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단속뿐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 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 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마약 청정국 회복'을 기조로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마약 중독 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해왔다. 단속 투약 사범에 대해선 중독 수준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연계모형을 만들어 4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애초 유관기관들이 개별로 운영하던 '사법' (법무·검찰) - '치료' (보건복지부) - '재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보호관찰소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 재범을 방지하고 사범을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만 해당 연계모형이 전국에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검찰은 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단순 교육 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는 등 재범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대량 밀수·유통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줄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울해 더 많을 것"이라며 "마약사범은 처벌도 중요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는 게 핵심이다. 리니언시나 보상금 제도 개선 등은 과거에도 나왔던 방안들인데,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spes@ 전이현 기자 cahyun@

## 마약사범 양형수위 내달부터 상향 청소년에 판매하면 최고 무기징역

**대법, 대마 단순 소지도 3년 양형**

마약 사범들에게 한국은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은 '저위험 고수익' 시장으로 통한다. 사법부가 올해 7월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배경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필로폰이 함유된 액체를 '집중력 향상 음료'로 속여 10대에게 제공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 했던 이른바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무차별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성년자와 형성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청소년 사건을 다수 맡은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적은 양으로도 뇌 손상의 정도

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약 거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가액 10억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kg, 헤로인 약 12kg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kg의 경우 약 33만 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 가액이 5000만 원을 넘어가는 범죄부터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로 정의하고 양형 가중 사유로 보기로 했다.


대마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수년 사이 재벌가 3세, 유명 배우와 가수 등이 연이어 대마 흡연, 교사협 등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등 사회문제화된 만큼 대마를 투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권고 형량 범위를 최대 3년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마를 수출입할 경우 4~7년이던 형량을 5~8년으로 상향했고, 가중처벌요소가 있을 시 7년~10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중처벌 요소는 '마약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한 경우' 등이다.

한편 범죄 과정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특히 비난할 사유'로 보고 양형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박꽃 기자 pgot@

**유안타증권**  
Yuanta Securities Korea



타레이더를 켜세요  
Turn on the tRadar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잡이,  
북극성처럼  
타레이더가 바른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myasset.com](http://www.myasset.com) | 고객센터 1588-2600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거래시 수수료는 0.065%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레이더는 투자판단을 위한 보조 서비스로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안타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3-246호 (2023.07.04~2024.07.03)

# 존림 “수주 문의 2배 증가… 인력 보강·6공장 검토할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최근 수주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에 맞춰 위탁개발(CDO)을 홍보하고 인력을 보강하며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를 고려해 6공장 건설도 검토할 것입니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바이오USA)’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원’ 시대를 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469억원, 2213억원으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존림 대표는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위탁생산 계약을 토대로 24만 리터(L) 규모의 4공장 중 6만 리터 부분의 가동률을 빠르게 상승시킨 것이 성장 요인”이라며 “하반기에도 4공장 18만 리터 부분도 실적에 반영되면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톱(TOP) 20개 제약사 중 16곳을 고객사로 확보하며 빅파마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제약사와 4건, 총 900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존림 대표는 “생산능력, 높은

올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달성  
글로벌 16개 제약 고객사 확보  
5공장 가동·ADC 수주 본격화  
美, 중소기업 퇴출 가능성 호재로  
세계 거점 확대… 경쟁력 강화

품질, 생산 유연성과 다수의 트랙 레코드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신뢰를 받으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준공을 앞둔 5공장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수주 활동이 본격화되고 남은 한 해도 수주 성과를 이어갈 것”으로 자신했다.

중국의 우려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도 호재다. 법안이 시행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과 계약한 미국 기업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생산력, 실적과 빅파마 네트워크가 탄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존림 대표는 “생물보안법 영향으로 현재 상황을 걱정하는 곳도 있고, 새 파트너를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는 곳도 있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우리도 최근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수주 관련 문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에 대비한 △CDO 홍보 △인력 보강 △6공장 건설 검토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0년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4공장(24만 리터)을 착공해 2023년 6월 전체 가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4월엔 18만 리터 규모의 5공장을 착공해 2025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5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능력은 78만4000리터로 전 세계 최대 규모다. 송도 11공구 부지에 추가 생산공장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도 차례로 건설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전시장 메인 위치에 139㎡ 규모로 부스를 설치하고, 신규 위탁개발(CDO) 플랫폼 ‘에스-텐시파이’와 ‘셀렉테일러’ 홍보에 집중했다.

존림 대표는 “5공장은 벌써 글로벌 고객사의 관심을 받고 있다. 5공장 생산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을 지속하고, 전 부문에서 자동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 효율의 5공장을 내년 4월 목표로 완공해 제2바이오캡 퍼스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성장 동력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 12월 ADC 생산시설을 완공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ADC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ADC 공장은 500리터 접합 반응기와 정제 1개 라인이 구축될 예정이며, ADC 공정기술 개발 역량 내재화를 위해 접합 공

정개발(0.2~4L)과 임상 물량 생산을 검토 중이다.

존림 대표는 “ADC 사업 범위로 CDO, 접합 위탁생산(CMO), 완제의약품(DP) 등을 검토하고 독소 링커기술을 요구하는 고객을 위해 ADC 플랫폼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여러 고객사와 ADC 제품 수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활용해 유망 바이오핵심 기술을 발굴하고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바이오클러스터에 거점을 확대해 경쟁력 강화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샌디에이고=글·사진 이상민 기자 imfactor@

# SK바이오팜 “美 엑스코프리 성공 이을 ‘차세대 신약’ 만들겠다”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신약을 공개했다.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를 통해 ‘제2의 엑스코프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SK바이오팜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바이오USA)’ 발표를 통해 차세대 치료제로 낙점한 표적분해단백질(TPD)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글로벌 연구개발(R&D) 위원회 지화수가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출시한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의 선전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엑스코프리는 1

차세대 치료제 ‘TPD’ 소개  
질병 유발 단백질 제거 기술  
분자 접착제 접목 개발 집중

분기 미국에서 매출 9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5% 성장했다. 올해 3월 기준 월간 총 처방 수는 약 2만 7000건이다. 엑스코프리를 미국에서 직접판매해 미국 내 매출총이익률이 90%대 중반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SK바이오팜은 엑스코프리 에 이어 두 번째 상업화 품목으로 TPD를 차세대 블록버스터로 정했다. TPD는 질병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 약으로 만들 수 없는 단백질에도 결합할 수 있어 새로운 치료접근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화수가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 글로벌 R&D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바이오USA 행사 발표를 통해 표적분해단백질(TPD)을 소개하고 있다.

TPD의 장점은 모든 단백질을 타깃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화수가 위원장은 이날 “단백질 분해는 임상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물질로 모든 단백질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약물화가 불가능했던 단백

질도 타깃 할 수 있다. 촉매 매커니즘이 작용 부위에서 필요한 약물 농도를 줄여 준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팜은 분자 접착제 발굴 플랫폼 MOPED를 접목해 TPD를 개발

중이다. 이 플랫폼은 분자 접착제 발굴 플랫폼으로 구조화·비구조화된 영역을 모두 타깃해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이와관련 현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는 2개의 분해제 후보물질이 임상에 진입한 상태다. 가장 주목받는 건 고형암 치료제인 PVTX-405다. PVTX-405는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IKZF2(이카로스 패밀러 징크 핑거2)를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 밖에도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PVTX-321과 p300(심근세포의 생리적 비대나 병적 비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SMARCA2 단백질(고형암에서 주로 발견되는 SMARCA4 단백질 변이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치료제도 개발 중이다. 샌디에이고=글·사진 이상민 기자 imfactor@

# “AI로 오류 없이 임상 분석… 글로벌 기업과 시너지 효과 기대”

빈준길 뉴로핏 대표

첫 부스 참가… 이미징 CRO 선배 이틀간 10곳 미팅 해외 진출 ‘물꼬’

뉴로핏이 영상 데이터 관리·분석 서비스인 ‘이미징 CRO(임상시험수탁기관)’로 뇌질환 진단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바이오USA)’ 현장

에서 본지와 만나 “미팅의 70% 이상이 팔로업 가능할 정도로 의미가 있었다. 향후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올해가 바이오USA 세 번째 참가인 뉴로핏은 한국바이오협회와 코트라가 마련한 한국관에 부스를 처음 마련했다. 지난해 선보인 이미징 CRO 서비스의 고객과 사업파트너를 찾기 위해 참가했다. 이미징 CRO는 임상시험에서 의료영상 데이터를 관리·분석하는 전문 서비스다. 자기공명영상(MRI)과 양전자단층촬영술(PET) 영상을 이용해 뇌의 부피, 백질의 변성, 병

변 분석, PET영상의 화학표지자 정량화 등 뇌영상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빈 대표는 “임상을 진행할 때, 의료영상을 활용한 정량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이미징 CRO는 적절한 임상 대상군 선별이나, 임상 대상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화된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며 “글로벌 기업은 임상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고, 뇌질환 치료제나 의료기기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뉴로핏 이미징 CRO의 강점은 인공지능(AI)이다. 빈 대표는 “AI를 적용해 현장

에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분석 결과를 낼 수 있어 오류 없이 일관된 분석을 할 수 있다. 경쟁사는 1명의 임상시험 대상자를 분석하는데 3~7일이 걸리지만 우리는 당일도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뉴로핏 부스엔 다양한 기업이 방문해 관심을 보였다. 빈 대표는 “이틀간 10개 기업을 만났다. 스폰서(제약사·의료기기), 스폰서의 영상을 분석해야 하는 CRO 등 기술협력을 원하는 곳이 다양했다. 미팅의 70~80%는 유호할 정도로 실속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협업을 통해 더 많은 의료 데이



빈준길 뉴로핏 대표는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2024 바이오인태셔널컨벤션(바이오USA)’ 현장에서 본지와 만나 이미징 CRO를 소개했다.

터를 다루고 해외 시장 진출 폭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샌디에이고=글·사진 이상민 기자 imfactor@

# 너의연주가 세계무대에 울려 퍼지게

어렸을 적부터 멋진 피아니스트를 꿈꿔 온 해림 씨가  
다양한 지원과 공연 기회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신한은 도전하는 청년들과 아름답게 동행합니다

## 청년은 더 빛나야 하니까 아름다운 동행

제15회 신한음악상 피아노 부문 수상  
피아니스트 박해림

### 제16회 신한음악상 본선 경연 관람 안내

#### 부문별 일시

첼로 : 2024년 6월 8일 (토), 10시

바이올린 : 2024년 6월 8일 (토), 14시

피아노 : 2024년 6월 9일 (일), 10시

성악 : 2024년 6월 9일 (일), 16시

#### 관람 방법

'신한음악상'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

※ 오프라인 관람 불가



### [국내 금융권 최초 클래식 콩쿠르, 신한음악상]

2009년 시작된 신한음악상은 국내 클래식 발전을 위해 젊은 유망주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세계를 빛낼 아름다운 연주자로 성장시키는 신한 대표 메세나 프로그램입니다



# 여야, 지도부 선출 내홍... 민생경제 법안 줄줄이 뒷전

與 첫목회 '투톱' 지도 체제 반대  
野 이재명 체제 강화 내부 불만

원 구성 못해 법안 심사 '스톱'  
고준위법·AI법 등 174건 계류



연금 열공하는 與 '첫목회'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 '첫목회' 회원들이 6일 국회에서 윤희숙(맨 오른쪽) 전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강연을 듣고 있다. 이날 첫목회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지도체제 방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살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 지도부 선출 현안으로 내홍이 생겼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문제였다.

국민의힘은 지도체제 변화와 지도부 선출 투표 방식 등 현안별 입장 차로 다투고 있다. 지도체제 변화 관련 의견을 종합하면 △집단(당 대표에 집중된 권한 분산) △단일(현행 당 대표에 권한 집중) △절충(집단·단일 혼합) 등이다. 지도부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 투표 100%' 변화에 공감하나,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

율을 두고 입장이 다르다. 여기에 더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 여부를 둘러싼 갈등도 있다.

국민의힘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 모임)'는 6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단일·집단 지도체제 혼합인 '절충형' 방식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그간 집단 지도체제로 변화를 요구했다. 당 대표 선출 규정도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바뀌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민주당도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가 핵심인 당헌·당규 개정 여부를 두고 내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도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갈등도 있다.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살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으로 정치권 살바 싸움에 발목 잡힌 법안이다.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25만 원 민생지원금 법'과 같은 민생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 살바 싸움으로 이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당분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통령실은 5일(현재시간) 한국, 미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 韓·美·日·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

각국 정부·기업, 공급망 개선 논의

참여국과 기업들은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의 생산이 소수 국가에 집중된 데 의견을 모으고, 의약품 공급망 지도의 구축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각국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바이오제약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각국 바이오 정책과 규제, 연구개발(R&D) 지원 정책 등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는 수단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 회의를 정례화해 경제안보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제약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엔 출범한 민·관 합동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추진됐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기술 대화 당시 양국이 이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참여 범위를 일본, 인도, EU로 확대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Dexcom G6

# 고혈당을 실시간으로, 저혈당을 사전에 알려주는

## 연속혈당측정시스템 **덱스콤 G6**

- ✓ 고혈당, 저혈당 알림과 경고!
- ✓ 손가락채혈(BG)을 통한 보정이 필수적이지 않음
- ✓ 혈당값을 5분마다, 하루 288번 스마트장치로 전송
- ✓ 최대 5명까지 연속 당수치 공유 가능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실구매가 10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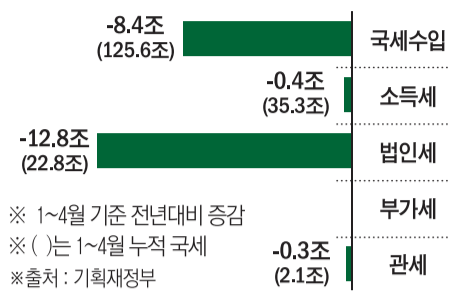
개인용체내연속혈당측정시스템/24개월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피부 표면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세포 간질액에서 측정된 포도당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포도당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로 자가검사용으로 집에서 사용하거나 의료기관 내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농도 측정 결과 수집을 위해 사용한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12021-010-18-0031 (유효기간 24.11.12)

**N** **덱스콤 G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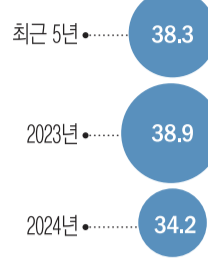
# 법인세 급감 예상보다 심각... 나라곳간 올해도 '빨간불'

올해 1~4월 12조8000억 덜 걷혀  
국세수입, 전년 대비 8.4조 줄어  
올 실적 좋아도 법인세 반영 안돼  
일각 "당해연도에 걷어야 효율적"

올해 국세 세목별 증감액 (단위: 원)



세수 진도율 (단위: %) ※ 4월 기준



※ 1~4월 기준 전년대비 증감  
※ ( )는 1~4월 누적 국세  
※ 출처: 기획재정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을 만나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묻는 질문에 답한 발언이다.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올해도 정부의 국세수입 목표치 대비 세수가 덜 걷히는 '세수 평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상보다 더한 법인세수 급감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 원으로 전년도 결산대비 77조 원(13.4%) 줄었다.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수입(344조1000억 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대비 51조9000억 원 줄었다. 정부의 예상 국세수입(400조5000억 원)보다는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다. 법인세(-23조2000억 원)와 소득세(-12조9000억 원)가 대폭 급감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들어서도 세수 부진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전년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올해 연간 국세수입 목표치(367조3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34.2%로 전년(38.9%)보다 저조하다. 작년보다 세수가 걷히는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다.

이 역시도 법인세 급감 여파다. 올해 1~4월 법인세(22조8000억 원)는 작년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2조8000억 원이나 줄

었다.

이 같은 법인세 수입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 줄어든 것이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45% 급감했고,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35.4% 줄었다.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 나쁘게 나온 것이어서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주요 세목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정부가 예측한대로 걷히고 있지만 법인세는 예상보다 저조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연간 법인세가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었는데 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들이 매월 내는 소득세처럼 기업의 법인세도 당해연도에 국세수입에 반영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 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되는 구조다. 가령 작년 기업 영업실적으로 매겨진 법인세가 올해 국세수입에 잡힌다는 얘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아무리 높아도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법인세가 크게 줄면 올해 전체 국세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준다. 내년 지출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세수 확보가 부진하면 지출예산을 보수적으로 짤 수밖에 없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은 좋은 상황이지만 이는 내년 국세수입에 잡힌다"며 "법인세를 당해연도 1~4분기로 나눠 각각 거둬들이는 것이 재정운영 측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외식 물가 상승률, 3년째 평균 웃돌아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2.8%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2.7%)보다 0.1%포인트(p) 높았다. 최근 3년 동안 외식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치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음식점 밀집지역의 모습. 뉴스시

## 폐기물저장소 남은 시간 6년 해결 첫 단추는 고준위특별법

여당의원들 잇따라 법안 발의  
지난 국회서 발의 법안 4건 폐기  
"미래 세대 위해 빠른 통과 필요"

6년 뒤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10년 내 다수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원전 가동 중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선 국민 수용성을 올리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첫 걸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으로 22대 국회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정치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은 22대 국회 개원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지' 관련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자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 공간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폐장이 없으니 원전 부산물인 고준위 방폐물은 원전 내에 쌓

이고 있다.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 운전이 시작된 이래 국내 원전에 쌓인 고준위 방폐물은 1만8900톤(t)에 달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월성(203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등의 원전에서도 부지 내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6년 뒤면 고준위 방폐물을 처리할 수 없어 순차적으로 원전이 멈출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도는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되고 말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이 의원은 "원자력의 혜택을 누린 우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결자해지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 "수익률 300%·환불보장"... 허위광고 불법리딩방 세무조사

수입신고 누락한 웨딩업체 등  
국세청, 민생침해 탈세 55명 대상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을 운영하는 A 법인은 인공지능(AI)으로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며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허위·과대 광고로 유료 회원을 모집했다. 수천만 원의 연회비를 할인해준다며 카드깡 업체 결제와 현금 결제로 유도했고,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법인상표권을 사주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한 뒤 법인에 10억 원에 파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투자 피해가 드러나자 폐업 후 사업체를 변경하는 이른바 '모자바꾸기'로 감시망을 피한 사실도 드러났다.

#B 업체는 유망 기업을 인수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뒤 매매거래장

지 직전 주식을 팔아 치웠다. 이렇게 쟁전 시세 차익은 세금 신고 없이 빼돌렸다.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추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이체해 숨기고 이를 카지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며 빼돌린 제조업체 7곳, 폭리를 취하면서 사주 급여 등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외식업체 18곳 등이다.

코인업체는 신종코인을 구매하면 고배당을 할 것처럼 속여 사회초년생·은퇴자 등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판매 수익을 챙긴 뒤 세금을 탈루했고, 웨딩업체는 할인을 미끼로 예식비의 90% 수준인 잔금을

결혼식당일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다.

커피와 탄산음료 등을 납품하는 음료 제조업체는 법인 자금을 사주의 카지노 자금을 이용했다.

수백 개의 전국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는 자녀 법인이 판매하는 비품을 시중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렸고, 사주는 수십억 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사적인 비용도 법인 지출로 회계처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최근 금융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해 재미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고 있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 증시 호황·고금리에... 미국인, 투자소득 3.7兆달러 '최대'

<1분기 이자·배당금>

미국인들이 뉴욕증시 호황과 고금리로 사상 최대 투자소득을 올렸다. 이는 미국의 견실한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올해 1분기에 이자와 배당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조7000억 달러(약 5080조 원)를 벌었다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7700억 달러 늘어난 것이다.

또 미국인들이 주식·부동산·연금 등으로 보유한 자산도 지난해 4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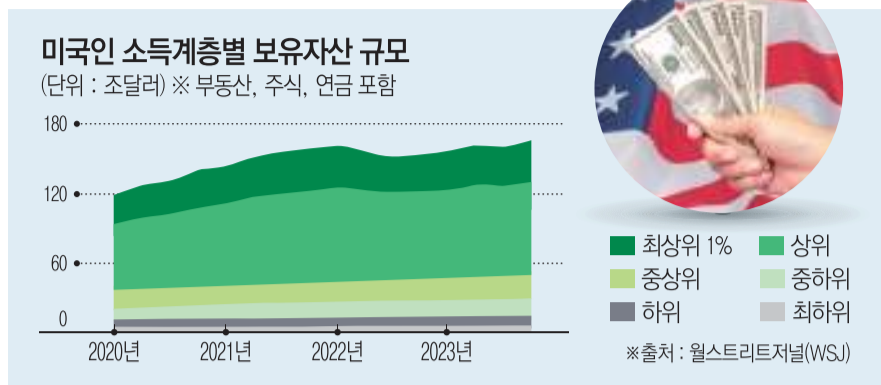
이렇게 투자소득과 가계자산이 늘어난 것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노동시장, 임금 상승세 등과 함께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소비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위 '부의 효과'가 소

4년 전보다 7700억달러 증가  
고물가에도 소비 촉진 원동력  
보유 자산도 작년 4분기 최대  
부의 쏠림 현상 심화 우려도

비어는 정도까지 견인할지, 그리고 그 영향이 경제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촉진할 수 있는지에 의견이 분분하다고 WSJ는 전했다.

가령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20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로 인해 미국 정부의 1분기 국제 이자 비용만 1조1000억 달러에 이른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대출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원하는 예비 주택 구입자, 신용카드 부채가 쌓이는 저소득층 미국인의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주택·주식 같은 자산을 이미 소유한 백인·부



자·고학력자·베이비붐 세대들을 향한 부의 쏠림 현상이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미국인들이 활발히 소비하면서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시작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다. 지금의 뉴욕증시 상승 주요 동력 중의 하나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현금이 풍부한 기업이나 머니마켓펀드(MMF)에 저축을 하는 미국인들은 투자수입 증가라는 혜택을 볼 수 있다.

투자소득 향상에 힘입어 많은 미국인이 레스토랑이나 호텔, 소매업체에서 왕성하게 현금 소비를 하면서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있다. 앨라배마주에 거주하는 한 퇴직자 부부는 WSJ와 인터뷰에서 "우리

부부는 '토끼와 거북이' 중 '거북이'와 비슷하다"며 "주식 배당금을 포함해 수십년간 느리지만 꾸준하게 투자한 결과 딸 중 한 명을 수의학과에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딸들은 물가를 매우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든든한 투자소득으로 인해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환경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열풍도 미국인들이 사상 최대 투자소득을 누리는 데 일조했다. 일반적으로 고금리 환경에서는 기업의 향후 예상이익을 바탕으로 부여하는 현재 가치가 잠식돼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 쉽다. 그러나 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술기업과 칩 제조업체, 심지어 전력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려 뉴욕증시 벤치마크 S&P500지수는 이날까지 포함해 무려 25차례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진영 기자 mint@



## 이스라엘, 가자지구 내 유엔 학교 폭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 난민촌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에서 6일(현지시간) 사람들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교내를 살펴보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유엔이 운영하는 이 학교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본부라 쓰이고 있다며 이날 공습을 단행했다. 팔레스타인 와파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 상황은 '종말론적인 폭력'이라며 "사상자 대부분은 여성과 어린이"라고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가자(팔레스타인)/AFP연합뉴스

## 미국 보잉 '스타라이너' 세번째 발사 끝에 성공

미국 항공우주 기업 보잉의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가 세번째 시도 끝에 발사에 성공했다. 이로써 기술적 문제로 발사가 두 차례 무산된 아픔을 뒤로하고, '2전 3기'로 첫 유인 시험비행 발사에 성공하는 쾌거를 누리게 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보잉의 'CST-100 스타라이너'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52분 2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V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됐다. 이후 15분 만에 우주비행사들이 탄 캡슐이 로켓과 성공적으

## 기술적 문제로 두차례 무산 '스페이스X'와 본격 경쟁



보잉의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5일(현지시간) 발사에 성공했다. 케이프커내버럴(미국)/AP뉴스

로 분리돼 비행을 시작했다.

스타라이너 시험비행이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의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와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사는 2014년 보잉에 42억 달러(약 5조 7500억 원), 스페이스X에 각각 26억 달러를 투자하고 우주선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스페이스X가 개발한 '크루드래곤'은 2020년 유인 시험비행에 먼저 성공하고 나서 9차례에 걸쳐 나사의 수송 임무를 완수했다.

이나영 기자 2or0@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로이터연합뉴스

## 코너 물리자 손 내민 푸틴 "韓과 관계 회복 준비됐다"

### 러시아 신냉전 구도 심화 상황 속 "우크라이에 무기 공급 안해 감사"

### 美·日엔 강경... 핵무기 불사 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한국과 미국, 일본 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된다.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로 장기화하면서 대내외 압박이 가중되자 쿿대 높은 푸틴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타스통신 주최로 열린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의 기자회견에서 "한·러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일을 할 때 어떠한 러시아 혐오적 태도를 보지 못했다"면서 "분쟁 지역(우크라이나)에 어떠한 무기 공급도 없다.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러 관계가 악화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불행히도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달성한 관계를 복원 하길 바란다. 협력을 지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푸틴이 2022년 10월 발다이클립 연설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우리 관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온도 차가 크다.

이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상당수 국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한반도 쪽까지 틀어지고 싶지 않기를 원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좋아하든 말든 우리의 이웃인 북한과 관계를 발전 시킬 것"이라며 밀착 관계를 분명히 했다.

반면 일본과 서구권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일본에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일본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일본과의 대화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미국·유럽 등 서방측에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동맹국의 타격 거리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무기 사용을 불사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푸틴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서방은 러시아가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2020년 발표한 '핵 독트린'에는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협한다면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것을 가볍게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진영 기자 mint@

## WSJ "바이든, 말 더듬고 의사소통 불명확"

### 만 81세... '노화리스크' 재점화 백악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

올해 만 81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노화리스크'가 재점화됐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WSJ의 보도가 '정치적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WSJ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 정부 당국자 등 4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닫힌 문 뒤에서 바이든은 미끄러진다'는 제목의 기사에는 바이든 이 말을 더듬거나 의사소통이 불명확하다는 주변 인사들의 평가가 담겨 있었다.

WSJ에 따르면 바이든은 1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논의를 위해 야당 의원들을 만났지만, 움직임이 더더 회의가 지체

됐다. 한 참석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말을 희미하게 해 참석자 대부분이 불편했다"며 "대부분 그의 말을 잘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트에 의존해 말하거나 오랜 시간 눈을 감고 대화를 멈춰 두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은 "내가 알던 예전의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외국 지도자와 초당파적인 안보 전문가들은 물론 공화당 소속 의원들마저 바이든이 요령 있고 유능한 지도자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정치 공세를 위해 이전 발언과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바이든의 고령에 따른 건강 우려는 치명적이라는 평가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은 재선에 성공하면만 86세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나영 기자 2or0@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 한시가 급한 반도체 지원... “법안 신속통과·정부 나서야”

시스템반도체 설계 여건 개선 등  
구자근·고동진 의원 발의 준비

시설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 재추진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 반도체 업계에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의

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반도체) 분야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회사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반도체설계재산의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설계재산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반도체설계재산 진흥센터 설립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이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설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스템반도체 시장은 크게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와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로 구분되는데, 글

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기업 중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 시장 점유율은 1%에 그칠 정도로 반도체 설계분야는 뒤처져 있다. 반도체 설계는 고급 설계인력 확보가 중요하지만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렵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비 부담은 큰데 지원이 부족한 것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해당 개정안은 발의 당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 시급한 법안이 우선 논의되며 뒤로 밀렸다. 구 의원은 개정안 발의 후 반도체 관련 시장 환경 등이 많이 변한 만큼 이를 반영해 법안을 다듬어 다시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 통과와 별개로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

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등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대체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2021년이나 지금이나 국내 시스템반도체 업계가 어려운 건 변함없다”며 “AI 기술 보급이 빨라지는 만큼 늦었지만 22대 국회에서라도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관계자도 “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정부의 지원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치우치지 않고 팹리스업체들에도 직접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박종권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

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개정안은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 돈을 퍼부으며 총력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반도체지원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abc123@

## 포스코 내달 조직개편... 이차전지 소재 확대

장인화 회장 “전기차 정체 일시적”  
철강업황 악화 대비 ‘조직 슬림화’  
자문기구 ‘기업시민실’ 축소 전망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철강업황 악화에 대비해 조직 슬림화에 박차를 가한다. 중복된 사업을 조정하고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내달 전 그룹사 조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장 회장의 ‘100일 현장동행’이 완료되는 즉시 계열사 현장 점검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구상이다. 장 회장은 평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둔화를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라 보고 이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차원에서 이

뤄질 이번 조직 개편은 인력 감축이 아닌 재조정 차원으로 지원 및 관리직을 줄이고, 이차전지 소재 분야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이와 함께 포스코 스마트팩토리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팩토리로 강화한다.

최정우 전 회장이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업시민실’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최 회장은 2019년 3월 포스코 기업시민 경영이념과 기업시민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포스코 그룹의 최고 자문기구로 기업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달 포스코를 비롯해 전 계열사에 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각 계열사에 조직 개편 방안 검토 지시를 내린 건 사실”이라며 “계열사별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의도”라고 했다.

앞서 포스코홀딩스는 4월 13개 팀을 9개 팀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의사결정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팀을 축소한 것이다. 핵심 사업을 지주사에 있는 통합 부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전기차 업황 부진에 시가총액이 급감하는 등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주목받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전방 수요 둔화와 핵심 원자재인 메탈가격 하락으로 줄줄이 실적 부진에 빠졌다.

포스코홀딩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8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한 규모다. 매출 또한 6.9% 줄어든 18조5200억 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제품이 대거 쏟아지면서 철강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재 수



장인화(왼쪽) 포스코그룹 회장이 5월 28일 포스코 재능봉사단원들과 포항 대송면 제내리에서 밤상 만들기 목공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포스코홀딩스

입은 각각 873만 톤, 561만 톤으로 2017년 이후 최대 수입량을 기록했다.

장 회장은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은 점차 개선될 것이고,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미래가치는 높아질 것”이라며 “차세대 소재 개발과 가격·품

질 경쟁우위 확보로 시장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관건으로 원료부터 소재까지 이차전지소재 풀밸류체인 구축의 완성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에서 포스코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욱 기자 toto@

## LG, 美 자동차 심장부서 SDV 솔루션 ‘알파웨어’ 소개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전시 첫 참가

LG전자가 소프트웨어중심자동차(SDV)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앞세워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이끈다.

LG전자는 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자동차 기술 전시회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오토테크)’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가 오토테크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행사에서 발렌틴 자니오프 LG전자 VS소프트웨어솔루션팀 팀장은 ‘SDV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SDV 전환을 위한 차별화된 솔루션인 LG 알파웨어를 소개했다.

LG 알파웨어는 자동차에서 △플레이웨어(PlayWare) △메타웨어(MetaWare) △비전웨어(VisionWare) △베이스웨어(BaseWare) △옵스웨어(OpsWare) 등 5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공한다.

플레이웨어는 차별화된 콘텐츠 경험을 선사하는 엔터테인먼트 솔루션이며 메타



발렌틴 자니오프 LG전자 VS소프트웨어솔루션팀 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오토테크 디트로이트 2024’에서 LG 알파웨어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웨어는 증강현실(AR)·혼합현실(MR) 기술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비전웨어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으로 사고를 방지하거나 주행을 돕는 솔루션이며 베이스웨어는 기존 차량의 운영체제(OS) 성능을 강화하거나 새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옵스웨어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를 돕고 LG전자만의 차별화된 사이버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LG전자는 올해 초 ‘CES 2024’에서 LG 알파웨어를 소개하며 자동차를 SDV 솔루션으로 구동되는 ‘바퀴 달린 생활공간(Living space on wheels)’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LG 알파웨어를 통해 차량에서 고객경험을 확장하는 ‘스마트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민재 기자 2mj@

## 스타트업 55% “규제 샌드박스 개선돼야”

경총, 300곳 규제경영환경 조사  
“행정처리 늦고, 규제 유예는 짧아”

국내 스타트업 3곳 중 2곳은 규제에 인한 애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전국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로 집계됐다.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스타트업 규제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규제 수준이 유사하다’는 응답은 57.0%, ‘규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최근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조사한 결과 ‘투자 자원 축소, 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고, ‘신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라는 응답이 44.7%로 높게

집계됐다.

투자 및 경영상 애로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65.7%가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고, ‘투자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4.3%였다. 또한 응답 기업의 61.0%는 ‘올해 신규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비중도 60.3%를 차지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묻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는 응답이 44.5% 순으로 나타났다.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

# 가치소비가 新트렌드... 침대는 과학이 아니라 친환경이다

시몬스, 비건 매트리스 'N32' 인기 작년 매출, 전년비 3배 이상 급증 업계 유일 안전인증 매년 갱신

신세계까지, 기존제품 전격 재단장 자연친화 마테라소 포레스트' 선배

국내 침대·매트리스 시장에서 친환경 제품군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고객들 사이에서 가치 소비 열풍이 일면서 업계 주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6월 업계에 따르면 침대업계의 친환경 트렌드를 대표하는 곳은 시몬스다. 시몬스는 지난해 가치 소비 열풍에 힘입어 비건 매트리스인 'N32' 판매가 급증했고, 이는 곧 업계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데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실제 국내 대표 프리미엄 토퍼로 우뚝 솟은 'N32 레귤러 토퍼'를 필두로 한 N32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초 선보인 전동침대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는 올 2월 기준 최근 6개월 매출이 직전 6개월 대비 40%가량 오르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다.

N32의 원단과 패딩에는 비건 소재인 '아이슬란드 씨셀'과 '리넨'을 적용했다. 아이슬란드 씨셀은 생분해가 가능해 자연으로 환원되는 비건 소재로, 아이슬란드



시몬스 'N32 스프링 매트리스'(왼쪽)와 신세계까지 '마테라소 포레스트' 컬렉션.



사진제공 각사

드 청정지역의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섬유인 셀룰로스를 함유하고 있다. 여기에 통기성이 뛰어난 식물성 소재인 리넨을 더했다.

올해 1월엔 비건표준인증원으로부터 △N32 스프링 매트리스 3종 △N32 폼 매트리스 3종 △N32 레귤러 토퍼 1종 등 총 7개 전 제품에 비건 인증까지 획득했다.

침대업계에선 국내 친환경 인증, 라돈·토론 안전제품 인증을 매년 갱신하는 곳은 시몬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쟁사들은 자연 친화 소재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신세계까지는 지난해 말 자연친화적 소재로 무장한 신규 컬렉션 '마테라소 포레스트'를 출시했다. 신세계까지는 마테라소

포레스트 출시를 시작으로 기존 매트리스 제품군을 전격 재단장하고 연내 두 가지 매트리스 컬렉션을 추가 론칭한다.

이를 통해 세분된 고객 취향을 적극 공략하며 다양한 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동시에 마테라소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브랜드 규모 또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마테라소 포레스트는 숙면을 위해 기능은 물론 매트리스 소재의 안전성까지 꼼꼼하게 분석하는 소비자들 및 환경을 위해 가치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 외피의 원단부터 내장재까지 안전한 소재들만 사용했다.

신세계까지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을 확대하기 위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 상

황"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안전한 제품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에이스침대도 끊임없는 설비투자 및 신기술,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에이스침대는 친환경 인증 제품은 아니지만 '인체와 가장 밀접한 가구인 침대는 품질과 위생이 최우선이다'라는 품질 철학으로 자연 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비부부들을 위한 '내추럴 인테리어' 콘셉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에이스침대가 선보인 '루체 III'는 차분하고 따뜻한 컬러로 편안함을 주고, 식물이나 천연 섬유 등 자연 친화적인 인테리어나이템과도 잘 조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침대와 가구 업계가 친환경성이 높은 매트리스 소재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찬바람 부는 이차전지 소재 알톤 '사업 다각화' 급제동

1분기 이차전지 소재 매출 70% 감소 주력사업 자전거 시장 침체 장기화 전체 영업손실 11.7억 '적자 전환'

사업 다각화를 위한 알톤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이 주춤하고 있다. 주력 사업인 자전거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가운데 알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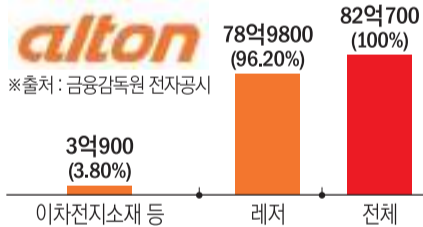
6월 자전거 업계에 따르면 1분기 알톤의 이차전지 소재 매출액은 3억 원으로 전년 동기(10억 원) 대비 70% 감소했다. 전체 사업 대비 이차전지 소재 매출 비중은 3.8%로 지난해 같은 기간(8.4%)보다 하락했다.

애초 알톤은 계열사를 통해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극재나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에 있는 자회사 '알톤(천진)자전거 유한공사'가 중심이 됐다. 지난해에는 매출액 35억2700만 원, 매출 비중 8.3%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차전지 관련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면서, 알톤의 이차전지 소재 매출액도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정관에 추가한 폐배터리 사업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올해 알톤 스포츠에서 알톤으로 상호를 변경해 신사업 확장 의지를 다졌지만 다소 제동이 걸렸다.

회사 관계자는 "재활용 비즈니스와 연결해서 하려던 것인데, 배터리 자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재활용 사업에 대

알톤 주요 제품 1분기 매출액 (단위: 만원) ※ ( )는 매출비중



한 시장의 기대나 수요가 전보다 떨어졌다"며 "리사이클링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알톤은 구체적인 계획 등이 정해지면 시장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알톤의 1분기 전체 매출액은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119억 원) 대비 31% 감소했다. 영업손실은 11억7200만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주요 제품인 자전거 시장 침체와 함께 레이저부문 매출이 79억 원으로 전년(109억 원)보다 급감했다.

매출에 큰 도움이 됐던 카카오와의 전기자전거 공급 계약은 2분기 마무리된다. 1분기 기준 관련 수주 잔고는 39억3100만 원 수준이다.

알톤은 다양한 수요에 맞춘 전기자전거를 출시해 매출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최근 350W(와트) 미드 드라이브 모터를 탑재하고, 알톤 제품 중 가장 용량이 큰 720와트시(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신제품 '스페이스S'를 선보였다.

회사에 따르면 미드 드라이브 모터는 차체 중앙에 모터가 있어 주행 안전성이 뛰어나고 기존 리어 허브 모터보다 힘 전달이 유리해 두 배 강한 토크를 자랑한다.

정수천 기자 int1000@

www.voicecaddie.co.kr  
1577-2862

**VOICE CADDIE**

# Laser

# FIT

## FIT 좋은 레이저

## 보이스캐디 Laser FIT

- 주머니에 들어가는 FIT함을 느껴보세요!
- 단 116g 가장 가벼운 거리측정기
- 카트에서도 공에서 핀까지 거리를 알려주는 Ball-to-Pin(볼투핀)
- 컬러에 사로잡히다! Cadet blue로 표현하는 나만의 골프스타일

**FIT한 골프의 상징**  
**보이스캐디 레이저 FIT을 만나보세요!**

# ‘나스닥 상장’ 불지핀 네이버 웹툰… 카카오·리디 IPO는?

네이버, 美SEC에 증권신고서 최대 5억 달러 조달 가능할 듯 카카오픽코마 등 IPO 시기 미정 리디는 “글로벌 사업 확대 목표”

네이버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에 나서면서 과거 기업공개(IPO)를 준비했던 카카오웹툰, 카카오픽코마, 리디 등 웹툰 업계 상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미국법인인 웹툰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나스닥 IPO를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네이버웹툰의 주식발행규모와 공모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네이버웹툰의 기업가치를 30억~40억 달러(약 4조1550억~5조5400억원)로 평가했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약 6925억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웹툰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견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데이터타에이아이에 따르면 네이버웹툰 일본 서비스인 라인망가

상장 증시	나스닥(NASDAQ)
종목 코드	WBTN
기업가치	약 4조1550억~5조5400억원 (30억~40억달러) 추정
주관사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버코어
지분구조	N 네이버 71.2%    라인이후 28.7%
이용자 수	1억7000만명

는 지난달 일본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에서 게임을 포함한 전체 앱 가운데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이전에 줄곧 1위를 지켜온 건카카오의 자회사카카오픽코마다. 카카오픽코마는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거래액 1000억 엔(약 9014억 원)을 경신한 바 있다. 카카오픽코마는 과거 일본 도쿄 거래소 상

을 추진한 바 있으나 최대주주인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등에 따라 IPO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픽코마는 현재 IPO의 적절한 시기를 위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카카오픽코마 관계자는 “시장 상황 및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서 IPO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웹툰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IPO 계획은 미정이다. 앞서 카카오 그룹의 차기 상장 후보로 밝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쪼개기 상장 이슈 등에 IPO를 잠정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상장 시점은 기업과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에 맞춰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장 시장 또한 국내를 포함해 카오엔터테인먼트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적절한 가치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두고 열린 자세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차례 기업 공개를 추진했던 리디는 현재 IPO보다는 글로벌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디는 2019년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 IPO를 추진했으나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투자업계 유동성이 악화되며 잠정 연기한 바 있다. 리디 관계자는 “당장은 IPO가 중심이 아니다”라며 “국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규모감을 키우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웹툰 섹터는 그간 웹툰 엔터테인먼트, 픽코마, 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복스와 같은 조 단위 대형주 상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이 한계였다”면서도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40억 달러 밸류로 미국 증시에 상장할 경우 웹툰 섹터에는 단순히 큰 대장주가 생기게 된다. 본격적인 섹터 형성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승훈(왼쪽)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과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이 업무 협약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 LG U+, 과학기술원 손잡고 'AI 메타버스 캠퍼스' 만든다

유버스에 AI기술 접목 협력 학생들에 양질의 수업·연구 제공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대학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GIST가 보유한 AI 기술과 LG유플러스의 메타버스 기술을 결합해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가상 캠퍼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타버스 공간에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해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LG유플러스의 대학 특화 메타버스 '유버스(UVERSE)'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AI 메타버스 캠퍼스 구현 및 운영 △AI 메타버스 캠퍼스 활성화 △실시간 온라인 강의 플랫폼 구성 등 차세대 AI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GIST가 보유한 AI 솔루션을 활용한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뤄지는 교과 수업을 AI가 실시간 통번역해 외국인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고, △조별 과제 △학습 지원 서비스 △교내 공지 등 기능에도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연내 GIST의 AI 메타버스 캠퍼스를 구축한다. 해당 가상 캠퍼스에 다양한 AI 기능을 적용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유버스의 공식 기능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승훈 LG유플러스 기업플랫폼사업담당은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선보인 대학 전용 메타버스에 GIST의 AI 기술을 적용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가상 캠퍼스 이용 경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GIST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양사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tswin@

## ‘제4이통’ 제동 건 정부... 적정성 검사 ‘송곳 검증’

과기정통부, 자본금 등 한달째 검토 스테이지엑스는 인재영입·조직정비

제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가운데, 사측은 인재 영입 및 조직 체계 확정 소식 등을 알리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6일 과기정통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가 첫 납부 이후 한달을 넘겼다. 스테이지엑스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대가 1차분인 430억 원을 5월 7일 납부했고, 이후 5월 14일, 5월 29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납입과 관련 구성 주주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이통사가 들어온 경우가 있지만, 컨소시엄 형태의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법률 검토도 받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그간 필요한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가 계획한 사업 자본금은 2000억 원이다. 먼저 500억 원을 확보해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했고, 3분기 이내 설비 및 서비스 투자를 위한 1500억 원을 증자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추가 제출한 서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주주구성이나 자본금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제4이통사 출범을 위한 행보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고 있다. 인재 영입 소식과 조직 체계 확립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5일 첫 컨소시엄 정기 간담회도 열었다.

이러한 행보에도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은 업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컨소시엄 주관사 스테이지파이브가 적자 규모가 큰 상황에서 지난달 2일 120억 원 규모의 CB(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면서다.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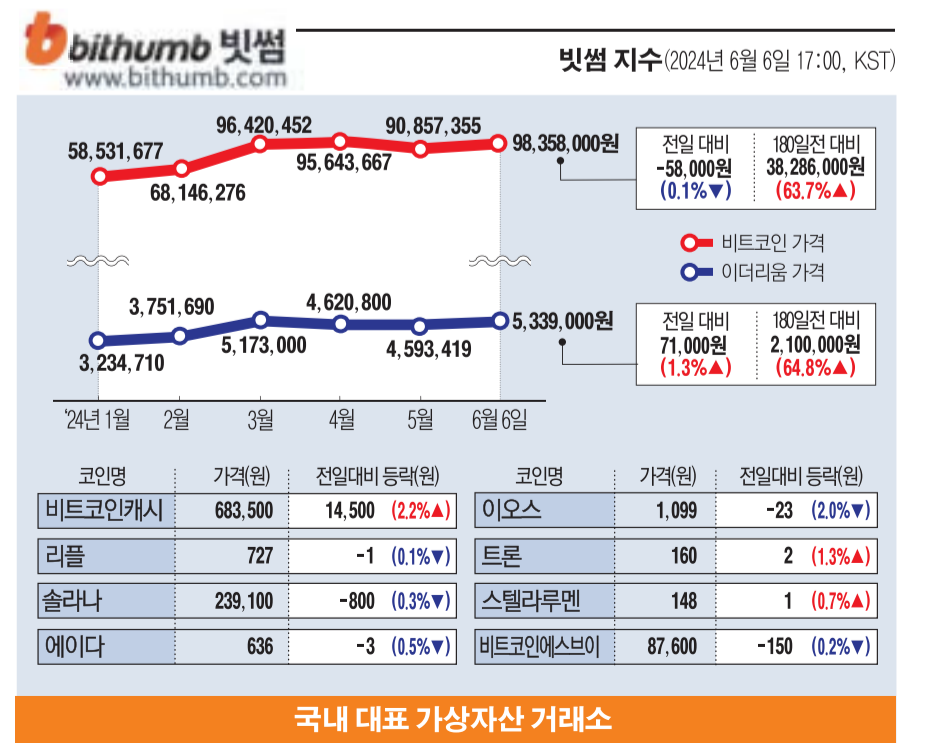
통신업계 관계자는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 문이 들 수밖에 없다”라면서 “서로 고객을 뺏어오는 현재 업계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제4이통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다른 경쟁사에 위협이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를 만들기 위해 처음부터 무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다른 사업자들이 재무

요인 등으로 7번이나 시장 진입에 실패하자, 정부는 지난해 선정 방식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바꾸며 재무 건전성을 심사 절차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4사 체제를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목적이다. 지난해 10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해외 주요국 신규사업자 이동통신시장 진입 효과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통신사가 신규 진입한 국가에서는 진입 5년 이후 요금제가 낮아졌다.

보고서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면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이동통신사(MNO) 진입에 따른 요금 인하 등의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신규 MNO 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쇼핑·외식·여가 한번에... 대형마트 빅3 '몰링' 승부수

국내 주요 대형마트가 복합쇼핑몰이 추구해온 '몰링(Malling:쇼핑과 동시에 엔터테인먼트와 외식·여가활동 등을 한곳에서 즐기는 소비형태)'에 집중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경쟁력을 가진 식품 매장 확대 전략은 유지하되, 입점 점포(테넌트)를 통한 체험 콘텐츠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객 체류시간을 점유해 외형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산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 죽전점은 이달 말 지하 1층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의 1차 리뉴얼을 마친다. 현재 리뉴얼 중인 지상 1, 2층에는 패션, 리빙, 엔터테인먼트, 식품(F&B) 테넌트가 대거 입점해 8월 말 '도심형 쇼

입점 점포 활용 체험 콘텐츠 확대 고객 체류시간 늘려 매출 시너지

이마트 죽전점 이달 1차 리뉴얼 롯데마트 의왕점도 매장 탈바꿈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전환

핑마켓'으로 그랜드 오픈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는 3월 주주총회에서 죽전점을 식품 특화매장으로 바꾼다고 공언했다.

일각에선 이마트 죽전점이 '스타필드마켓'으로 이름을 변경, 지역 랜드마크화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한다. 신세계프라

퍼티는 최근 스타필드마켓이라는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기도 했다. 다만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죽전점 리뉴얼 후 점포명에 대해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롯데마트 의왕점도 지난달 말 체류형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1층을 식료품(그로서리) 중심 매장으로 꾸미고 2층에 플라워 카페, 문화센터, 다이소, ABC마트 등을 넣었다. 특히 기존 2층에 있던 생활용품, 완구, 잡화 코너를 1층으로 내리고 헬스앤뷰티(H&B) 매장 '톱플러스'를 열었다. 식품·비식품을 한 공간에 뒤, 쇼핑 동선을 최소화한 것이다. 또한 델리와 냉장·냉동식품 면적을 기존 대비 50% 이

상 늘렸다. 델리 코너는 19미터(m)로, 진열 면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구매 빈도가 높은 치킨, 초밥에서 파스타, 샐러드 등까지 종류를 확대했다. 의왕점 반경 3km 내 3~4인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점을 노렸다.

홈플러스는 기존 점포를 신선식품 경쟁력을 강화한 미래형 대형마트인 '메가푸드마켓'로 전환, 몰링을 꾀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6월 초 현재까지 총 27개 점포를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전환했다. 변신한 주요 점포는 평균 20%가 넘는 매출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2월 인천 간석점에 메가푸드마켓을 처음 선보인 이후 약 2년 3개월 만

에 누적 고객 7000만 명을 넘는 성과도 냈다.

대형마트 3사가 식품 매장 확대와 동시에 테넌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은 고객 체류시간을 점유해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경쟁력이 떨어진 비식품군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식품과 F&B, 테넌트를 강화해 한 마디로 미니 복합쇼핑몰 형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유통채널의 최대 장점인 식품 경쟁력을 높여 고객을 꾀하고, 더 나아가 차별화된 테넌트를 활용해 연계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 빅3 업체들이 분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신세계 "마이크로키보드 만나보세요" 신세계백화점이 서울 강남점 오븐스테이지에서 스위스 키보드 브랜드 '마이크로키보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전기자전거, 키보드와 초소형 전기자전거 마이크로리노 등 전 상품을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13일까지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에는 마이크로키보드 상품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어린이는 물론 성인들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다. 대표 상품으로는 미니 핸드 디럭스 LED, 미니 투고 디럭스 플러스 LED 등이 있다. 팝업 스토어 방문객들은 룰렛과 해시태그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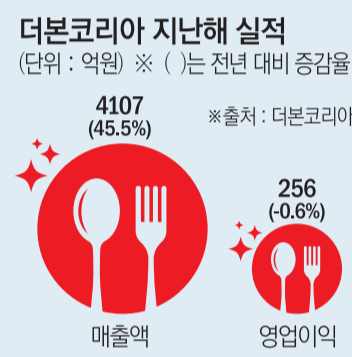
## 'IPO 재도전'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한계 넘나

'집밥 백선생'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프랜차이즈 업체 더본코리아가 상장 재도전에 나서면서 성공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프랜차이즈업종의 경우 수익성이 다른 업종보다 낮은 편이라 증시 입성 성공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는 상장을 위해 가격인상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브랜드를 확장하는 전략을 세웠다.

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접수하고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 중이다.

1994년 1월 설립된 더본코리아(더본)는 홍콩반점, 뽕다방, 새마을식당, 역전우동 등 20여 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기업이다. 방승기를 중흥무진하는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가 약 77%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다. 앞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을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IPO 재도전에 나섰다.

더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45.5% 증가한 4107억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매출액은 2020년 1507억 원에서 2021년 1941억 원으로 꾸준히 성장세



주요 브랜드

- 홍콩반점
- 뽕다방
- 역전우동
- 한신포차
- 새마을식당
- 백보이피자
- 백스비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프랜차이즈 업종 입성 사례 적어 가격인상 통한 몸집불리기 전략 심사 통과 땀 8월 말께 입성 전망

다. 영업이익은 2020년 82억 원, 2021년 195억 원, 2022년 258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다만 작년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0.6% 소폭 줄어 256억 원이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지만, 상장 성공 가능성은 확인하기 힘들다. 외식 프랜차이즈의 상장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서다. 현재 국내 증시 상장 기업은 교촌에프앤비(교촌치킨), 대산F&B(미스터피자), 디딤이앤에프(연안식당)로 소수다. 투썸플레이스, 할리스, 제너시스BBQ, 본아이에

프 등이 상장에 도전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더본은 몸집 불리기를 통해 상장 성공을 꾀하고 있다. 홍콩반점, 뽕다방, 한신포차 등 최근 주요 브랜드의 잇단 가격인상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브랜드 다양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전략도 엿보인다.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더본의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2개였지만 현재 25개에 이른다. 더본의 상장은 하반기로 접어들었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통상 심사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며, 심사 통과 시 빠른 8월 말께 증시에 입성할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iy42@

## 현대홈쇼핑, 화성시에 새 물류센터 오픈

상품 출고 20% 늘어... 하루 5만건

현대홈쇼핑이 경기도 화성시에 새 물류센터를 오픈해 기존보다 20% 늘어난 하루 최대 5만 건의 상품 출고가 가능해졌다.

현대홈쇼핑은 전날 연면적 약 3만8000㎡(1만1400평), 전체 3개 층으로 최대 158만 박스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화성 물류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 경기 군포시에서 운영하던 물류센터를 확장 이전한 것으로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와 강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화성 물류센터에는 최신 자동화 설비가 도입돼 출고 시 컨베이어벨트 위 상품 운송장을 인식해 주문 취소나 운송장 오류 실시간 파악과 자동 분류가 가능하다. 또 상품 중앙 계측 장비를 설치해 기존 수작업으로 무게를 측정해 정상품 여부를 확



경기도 화성시에서 진행된 현대홈쇼핑 화성 물류센터 개소식에서 한광영 현대홈쇼핑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홈쇼핑

인하는 절차도 사라지게 됐다. 이를 통해 상품 분류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60% 이상 단축되고 하루 출고량이 최대 5만 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대비 20% 확대되는 수준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물류센터 확장이 전을 통해 배송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 MZ·경영진의 소통... KT&G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 임명식

2030세대 직원 8명 선발

취임 석 달여를 맞은 방경만 KT&G 사장이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을 싣고 있다.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MZ 직원들과의 만남을 정례화해 세대 간 간극을 좁히고 낯은 기업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KT&G를 알리고 싶은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KT&G는 전날 2030세대 직원 8명으로 구성된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Global Jr. Committee)' 1기와 '글로벌 CA(Global Change Agent)' 임명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방경만 KT&G 사장이 직접 참석해 선발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목표로 젊은 구성원들과 경영진의 소통을 주도하는 기업문화 개선



5일 열린 '글로벌 주니어 커미티&글로벌 CA' 임명식에서 방경만 KT&G 사장(왼쪽 세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KT&G

협의체다. 이들은 사내 공모를 통해 본사·영업·제조 등 각 부서 별로 선발돼 9개월간 조직문화 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글로벌 CA에는 해외법인 외국인 직원들도 참여해 국내외 조직문화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 전파에 나선다

방 사장은 이를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기업문화 혁신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확장으로 현지인

력이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업무 방식 등 선진 기업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방 사장은 3월 취임 이후 2030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어왔다. 방 사장 자신이 1998년 한국담배인삼공사(KT&G 전신) 공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7년 만에 대표이사 직에 오른 만큼 회사 선배로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직원 관심사와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청취하고 이를 경영 일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방 사장은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 방식 변화 등 기업문화를 혁신하는 것은 '글로벌 톱 티어' 실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통해 기업문화에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자금세탁방지〉

# “AML 준수 철저히”... 신한·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고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신한과 새마을금고는 자금세탁 인프라 개발과 관련 점검시험 이수 의무화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수습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 및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2월과 5월, 신한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공시한 이후 상호금융권의 자금세탁방지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재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불법재산을 감출 목적으로 해당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거짓되게 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AML 규제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와 의심거래보고제도(STR)가 있다. CTR은 동일 금융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는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보고하게 하는 제도다. 고액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FIU, 위반행위 제재 첫 공시**  
새마을금고 5곳·신협 4곳 제재조치  
고액현금거래 보고 위반 등 51건

**신협 “전국 단위의 전산시스템 구축”**  
새마을금고는 “TPAC 응시 의무”  
AML제도 위반행위 재발방지 다짐

FIU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에서 적발된 AML제도 위반 건 중 CTR 위반이 7곳(36건)으로 STR 위반 2곳(15건)보다 많이 적발됐다. CTR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STR과 달리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하는 금융제도다. CTR 위반이 더 많다는 것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강화를 천명했다. 1월 FIU는 ‘자금세탁방지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 운영방향’을 발표해 전문가 양성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역량과제도 이해 수준을 평가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점검시험(TPAC)’ 도입, 시행에 나섰다. 앞서 이달 1일에는 1회 시험도 치렀다.

이번에 적발된 두 기관은 AML 제도 준수를 위해 철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신한중앙회는 시스템 정비를 통해 개별 조합 직원들이 실수로 AML 제도를 위반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신한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 공시에 올라온 조합의 경우, 직원의 착오로 보고 시기를 놓치는 등 ‘단순 누락’ 건이 많았다”며 “이전에도 교육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앙회 차원에서 전국

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수로 보고를 빠뜨리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금세탁방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중앙회 전담부서 직원들의 TPAC 응시를 검토하고 있다. 회장 직속 준법감시부문에 자금세탁방지부를 별도로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해당 부서 감사원 전원이 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자금세탁방지 핵심요원’ 교육을 이수한 상태다. 개별 금고의 경우, 중앙회 전담부서에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인력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은 없지만, 해당 업무를 영업과 같이 하기는 어렵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담당하도록 금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유하영 기자 haha@



“지구살리기 동참” 카카오페이, 새내 카페 다회용컵 도입  
카카오페이가 판교 본사 사옥 새내카페의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교체했다고 6일 밝혔다.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폐기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오피스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내린 결정이다. 신원근(가운데) 카카오페이 대표와 직원들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카카오페이

## 종합지급결제업 도입 속도 못내자

## 보험사들, 은행과 ‘연합전선’

삼성금융,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모니모 회원 전용 파킹통장 출시  
현대해상 ‘유뱅크 컨소시엄’ 동참  
한화생명엔 인니 은행업 ‘도전장’

한 분야의 회사가 참여하며 혁신적인 사업계획이나 나올 것이라는 금융권의 기대가 큰 상태다.

한화생명은 아예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인도네시아 내 30위권 중형은행인 노부은행의 지분 40%를 인수, 글로벌사업을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통해 현지에서 방카슈랑스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은행권에 손을 뻗는 것은 금융당국이 추진한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잠정 중단된 영향이 크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비은행 금융권의 플랫폼 안에서 입출금·결제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내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지난해에도 금융위가 은행업의 경쟁촉진을 통한 시중은행의 과점체제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결제계좌를 비은행권에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검토가 다시 중단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이 당장 논의되기 힘든 상태다 보니 현재 은행과의 제휴나 투자가 최선”이라며 “신규 고객의 유입과 체류를 이끄는 마케팅 측면에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dove@

시중은행과 손을잡거나 투자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제휴 통장을 만들거나 방카슈랑스를 통해 새로운 고객과의 만남을 늘려 직접적인 매출로 연결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보험사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이 이뤄지자 자체적으로 은행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공동브랜드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KB국민은행과 협력해 ‘모니모’ 회원 전용 파킹통장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파킹통장은 현재 금융당국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번 제휴로 높은 금리의 파킹통장을 선보인다면 두 금융사 모두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나 금융상품 고객을 추가로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해상도 렌트·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점삼)·트래블윌렛 등과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는 ‘유뱅크 컨소시엄’에 동참했다. 보험사부터 핀테크기업, 인공지능(AI)스타트업 등 다양

## 비급여 의료 많이 쓸수록 실손보험료 오른다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4세대 실손의료 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될 수 있다.

6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된 바 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료를 100만 원 이상 받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다. 할증률은 100~300%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00% 각각 할증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전무한 경우 보험료를 약 5% 내외 할인해 주며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계약



서울 한 병원의 물리치료실. 연합뉴스

**4세대 실손의료 보험료 차등적용**  
비급여 연간 수령액 100만원 이상  
보험료 최대 300% 할증될 수도  
수령액 전혀 없을때 5% 내외 할인

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지급 실적이 기준이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료를 받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해 5% 내외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

은 62.1%에 달하지만, 할증 대상자는 1.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36.6%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해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dove@

## “우리는 하나금융 알릴 MZ파트너”

하나금융 ‘18기 스마트 홍보대사’  
50명 선발... 13대 1 경쟁률 뚫어

하나금융그룹은 ‘18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 홍보대사는 하나금융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으로, 올해 50명이 선발됐다.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이들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룹의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해 MZ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직접 발대식에 참여한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학교에서 직접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신한 MZ만의 방법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경험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



‘18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에 참석한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스마트 홍보대사들과 함께 ‘손하트’와 ‘하나’를 의미하는 손가락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났을 때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오는 8월 말까지 △그룹 주요 관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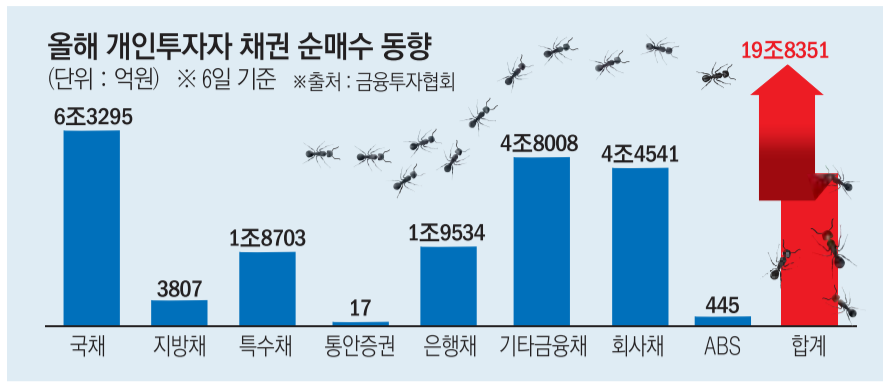
탐방 및 최고경영자(CEO)와의 대화 △그룹 공식 유튜브하나TV 콘텐츠 제작 △그룹 스포츠단 연계 마케팅 기획 및 홍보활동 △그룹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활동 △신사업 기획 아이디어 제안 △임직원 멘토링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스마트 홍보대사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평가를 통해 수료자 전원에게 해외봉사 및 하나금융 해외법인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입사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주식 팔고 채권 담는 개미들... 올해 19.8조 사들였다

경기 불확실성·국내증시 부진에  
안전자산 선호...국채 6.3조 매수  
13~17일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  
美·日 국채 ETF도 대규모 매입  
개인, 코스피 11조 이상 순매도  
예탁금 등 대기자금 133조 넘어



개인투자자들의 채권 투자 열기가 뜨겁다. 채권시장에 자금이 몰리는 이유는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멀고 증시가외풍에 쉽게 흔들리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꾸준히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만기에 원금을 받을 수 있어 위험자산인 주식보다 안정적이다.

6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올해 채권을 19조8351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전년 동기(16조4326억 원)보다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보험(13조

6505억 원)과 종합금융·상호금융(15조 6068억 원), 기금·공채(17조5792억 원)보다도 많이 샀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개인은 국채(6조 3295억 원)를 가장 많이 샀다. 이어 금융채(여전채) 4조8008억 원, 회사채 4조 4541억 원, 은행채 1조9534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투자자의 올해 채권 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상품이 이달 20일 출시된다. 정

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만기가 길어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라면 주목해볼 만하다. 분리와세 혜택도 있어 노후 대비나 자녀 학자금 마련 등에 활용하기에 안성맞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은 13일부터 17일까지 3거래일 동안 진행된다. 올해 연간 발행 한도는 1조 원이고, 첫 달인 6월에는 2000억 원 규모로 발행된다. 매월 발행 한도는 달라진다.

해외에서도 개인의 채권 사랑은 확인된다. 서학개미(미국 증시 투자자)는 올해 '디렉스온 데일리 20년 이상 미 국채 3X 상장지수펀드(ETF)'(TMF)를 13억 달러 넘게 사들였다. 일학개미(일본 증시 투자자)는 올해 '아이셰어즈 20년 이상 미국채 엔화ETF'를 6억 달러 가까이 사들여 일본 증시 순매수 1위에 올랐다.

반면 주식같은 위험자산에서는 개미들이 발을 빼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일까지 개인들은 코스피 시장

에서 11조42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개인은 4월(469억 원)과 5월(7570억 원)에 순매수로 돌아섰다가 다시 이달 들어 236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인다.

시장에서는 선뜻 주식투자를 꺼리는 분위기다. 4월 기준 종합자산관리계좌(CMA)잔고와 투자자예탁금은 각각 80조5759억 원, 52조9686억 원에 달한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 치우며 활황을 맞은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2600선에서 힘겨운 고지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주처럼 시장을 이끌어 갈 주도주가 부족한 데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하다면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채권 비중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현재 경기와 고용 상황 고려할 때 금리 하락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지난해 국채 중도매도 전략으로 차익을 얻은 경험이 있는 직장인 장종훈 씨(52)는 지난달 'SK311-1'와 '국고채 20-2'를 1000여만 원어치 매수했다. 장 씨는 "시장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은 채권이라고 해서 나중에 사고팔아 차익을 내기에 편할 것 같다"며 "장기채는 만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래량 많은 채권을 택했다. 중도 매도해 시세차익을 본 후 채권 투자에 재미를 들였다"고 했다.

## 서학개미, 열흘간 엔비디아 1.9억弗 매수

AI 타고 엔비디아 가치 고공행진  
월가 목표주가 잇따라 상향조정

직장인 신숙희(43) 씨는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해 올해 초 2.5배 가까운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다. AI, 로봇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샀는데 올해 수익률이 13%를 넘는다. 신 씨는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반도체, AI, 로봇 분야에 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미국 주식 투자가 필수"라며 "지난 주에 엔비디아 주식을 5000만 원어치 추가로 샀다"고 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이 사상 최고가를 달리는 엔비디아 주식을 쓸어들어 담고 있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10거래일(5월 23일~6월 5일) 동안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엔비

디아였다. 순매수 규모는 1억8808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델 테크놀로지스(6741만 달러), 리얼티인컴(5544만 달러), 쉘컴(4906만 달러), 슈왓 미국 배당주 ETF(3291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178만 달러) 등도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들이 앞다퉈 엔비디아 주식을 투자 바꾸니에 답는 건 AI 붐에 기업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는 AI 등 첨단 IT 분야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리서치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은 작년 2000억 달러에서 2030년 2조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월가는 엔비디아 주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이나 JP모건은 목표주가를 기존 850달러에서 1150달러로 높였다. 번

스타인(1000달러→1300달러), 바클레이즈(1100달러→120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문준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루빈을 통해 엔비디아가 GPU 성능에 이어 전력 효율성에도 더 집중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차차기 제품군들 역시 성능과 효율성 모두 우위를 가져가는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개미들은 미국 시장만 바라보고 있다.

신술위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이 낸 '내국인의 해외 투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주식 중 미국 주식 비율은 20일 기준 89.3%에 달했다. 2위인 일본 주식(4.8%)의 18배가 넘는다. 홍콩(2.1%), 중국(1.1%), 유럽(0.4%) 등 다른 주요국 주식 비율도 미미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 IBK투자증권 'AI 공시·매매 분석' 서비스

IBK투자증권은 고객에게 다양한 관점의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내 '인공지능(AI) 투자정보' 메뉴를 구성, 알고리즘 AI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알고리즘 AI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공시 AI 인사이트',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활용한 '시그널엔진'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공시 AI 인사이트는 △매출액 대비 높은 비중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매출·영업이익이 상승한 기업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 △국내 주요 기관이 투자하는 기업 △최대 흑자 기업 △흑자 전환 기업 등 고객 투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를 키워드 중심으로 제공한다.

시그널엔진은 금융 빅데이터 분석 AI 솔루션을 통해 상장된 종목의 매매 시그널을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서비스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 속에서 고객분들의 더 나은 투자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알고리즘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현재 개발 중인 생성형 AI 기술 기반 투자 정보 서비스도 조만간 선보여 IBK투자증권 MTS를 이용하는 고객분들의 성공적 투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원 기자 hwyoon@



윤병우(오른쪽 세 번째) NH투자증권 대표와 안병우(가운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가 5일 경기도 안성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세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열린 축산환경개선 사업 행사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 정유 부진·이차전지 적자... 시름 깊은 SK이노

정제마진 급락·배터리 생산 저조  
SK은 북미공장 가동률 회복 관전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으로 정유화학주들이 들쭉이지만, SK이노베이션은 소외돼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SK이노베이션 주가는 0.67% 내린 10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이노베이션 주가는 지난해 7월 이차전지 열풍이 불던 시기 20만 원 선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지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초에 비해서도 25% 넘게 빠졌다.

주가 악화의 배경에는 실적 부진이 있다. 유안타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영업이익이 3760억 원으로 1분기 6247억 원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제마진이 급락하면서 정유 부문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직전 분기 대비 사업 부문별 예상 손익은 △정유 5911억 원→1725억 원 △배터리 마이너스(-) 3315억 원→2611억 원 △석화·운할유·자원개발 4993억 원→5453억 원이다.

배터리 부문도 배터리 가동률이 70% 전후로 부진해 여전히 2000억 원대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이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 가동률은 90% 수준이다.

정제마진 급락으로 정유부문의 실적도 신통치 않다. 특히 정유부문의 수익 지표인 싱가포르 정제 마진은 SK이노베이션의 손익분기점인 배럴당 4~4.5달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쿠웨이트 알주르(AI Zour) 62만 b/

d(하루당 배럴), 나이지리아 당코테(Dangote) 65만 b/d, 멕시코 올메카(Olmeca) 34만 b/d 등 대형설비가동이 집중되면서, 공급압박이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압력은 4분기부터 완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자회사 SK온의 사업 불확실성 역시 모회사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SK이노베이션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배터리 계열사 SK온의 사업적자를 거론한다.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은 "오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SK온 북미 공장 가동률 회복 여부가 적자 축소의 가장 큰 변수"라며 "북미 공장의 판매량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영업적자도 꺾을 것"이라며 "축소를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민 기자 hihello@

## NH투자증권, ESG 실천 위한 축산환경개선 진행

NH투자증권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윤병운 대표와 안병우 축산경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축산환경개선 사업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행사는 축산 냄새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탄소저감용 나무 식재를 통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한편 축산농가 외부 경관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로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NH투자증권이 지난달 주최한 '2024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통해 이뤄졌다.

윤 대표는 "축산경제에서 진행하고 있

는 'ESG경영 실천 축산환경개선 캠페인'을 통해 축산업도 친환경적이며 지역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ESG친화적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NH투자증권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축산업과 축산농가 발전을 위한 고민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가치 확산 활동의 일환으로 신규 판로개척이 필요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사업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범농협 계열사로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효숙 기자 ssook@

# “뚝뚝한 한 채 찾아”...외지인 서울 아파트 투자 늘었다

4월 지방 투자자 비중 21.9%  
2월 기점으로 20%선 넘어서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반등 영향  
반면 지방 아파트 서울 투자자는  
오히려 줄거나 비슷한 수준  
지방집값 침체, 서울로 자산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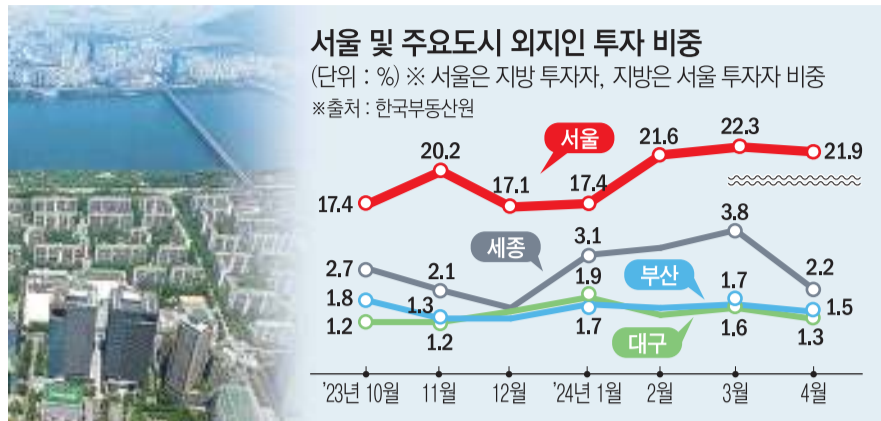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지방 투자자 비중이 2월 이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지방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매수는 시들했지만,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산하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기존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보다 용산구와 성동구 등 새롭게 부상한 핵심지를 중심으로 지방 투자자가 급증했다. 반면, 지방 아파트에 대한 서울 투자자 매수세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6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통계 분석 결과 4월 기준 서울의 지방 투자자(외지인) 비중은 21.9%로 집계됐다.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규모는 6725건으로 이 가운데 지방 투자자 거래는 1471건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지방 투자자 비중은 2월을 기점으로 20% 선을 웃돌고 있다. 이 비중은 지난해 말 17.1%(6005건 중 1029건)로 20%를 밑돌았다. 올해 1월에도 17.4%(5995건 중 1046건)로 지난해 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2월 지방 투자자 비중은 21.6%(5024건 중 1085건)로 상승한 뒤 3월 22.3%(4464건 중 994건)까지 늘었다. 4월은 전월 대비 소폭 지방 투자자 비중이 줄었지만,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4.7%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는 지방 투자자가 늘어난 것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수 주째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본격



적인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서울 내 지역별 지방 투자자 비중은 외곽지역보다 핵심지 위주로 늘었다. 용산구는 지난 1월 지방 투자자 비중이 20.0%였지만, 4월에는 29.4%까지 높아졌다. 성동구 역시 1월 18.4% 수준에서 4월 26.0%로 7.6%p 상승했다. 강남 3구는 지역별로 지방 투자자 매수 움직임이 달랐다. 서초구는 1월 24.3%에서 4월

17.9%로 줄었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4월 각각 22.0%와 26.2%로 1월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는 4월 지방 투자자 비중이 18.2%로 나타나 1월 22.9% 대비 4.7%p 줄었다. 중랑구 역시 같은 기간 22.9%에서 17.8%로 5.1%p 축소됐다.

다만, 지방은 서울과 정반대로 아파트 시장 내 외지인 투비중이 좀처럼 늘지 않

고 있다. 부산과 대구는 4월 기준 서울 투자자 비중이 각각 1.5%와 1.3% 수준으로 1월 부산 1.7%와 대구 1.9%보다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4월 2.2%를 기록해 지난 1월 3.1% 대비 0.9%p가량 줄어드는 등 지방 주요 지역에선 서울 투자자 비중이 여전히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집값이 먼저 올라 회복세를 보인 반면, 지방은 집값 침체가 계속되자 지방 투자자들이 가격 상승세가 빠른(서울) 지역으로 자산 이동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여전한 만큼 서울 내 ‘뚝뚝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윤위원은 “지방은 서울과 달리 집값이 더 내리거나, 상승 기대감이 없는 지역도 많다”며 “투자자의 서울 아파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올드맨 VS 뉴맨 ... 새 수장 맞은 건설사 행보에 쏠리는 눈

KCC 심광주·포스코 전중선  
잠시 일선 후퇴했다 대표직 복귀  
DL 서영재·신세계 허병훈 대표  
SK플랜트 김형근 사장 내정자는  
非건설업 출신으로 새롭게 등판  
사업 안정화 혹은 재무구조 개선  
전조한 실적으로 이어질지 관심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서영재 DL이앤씨 대표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 내정자



허병훈 신세계건설 대표

건설사들이 수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실적 개선, IPO(기업공개) 추진 등 각 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신입 사령탑으로 부름 받은 대표들은 일선에서 잠시 물러나 있던 ‘올드맨’ 과 비건설업 출신인 ‘뉴맨’으로 나뉜다. 이들이 조직 안정화를 바탕으로 견조한 실적 구축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수의 건설사가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했다. 먼저 KCC건설은 은퇴한 올드맨 심광주 대표를 재소환했다. 심 대표는 KCC

건설에서만 40년을 몸담은 ‘진골’이다. 건축본부장, 기술본부장, 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 대표는 불안정성이 큰 시기인 만큼, 수십 년간 불황과 위기를 해결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업 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홀딩스 상임 고문으로 물러났던 전중선 사장을 불러들였다. 전 사장은 1987년 포스코에 입사해 36년여간 근무한 ‘포스코맨’이다. 2016년 포스코 경영전략실장을 시작으로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사장, 포스코가치경영센터장, 포스코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포스코홀

딩스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포스코그룹 회장 하마평에 오르는 등 주축 인사로 평가된다. 포스코이앤씨가 4년 만에 사장 교체란 강수를 둔 만큼, 실적 쇄신과 친환경 사업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등판한 ‘뉴맨’으론 DL이앤씨의 서영재 대표가 있다. 서 대표는 1991년 LG전자에 입사해 2011년 LG전자 HE사업본부 스마트사업담당 상무, 2022년 BS사업본부 IT사업부장을 수행하며 10년 이상 LG전자에 몸담았다. 특히 이번이 세 번째 LG전자 출신 인사 선임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

이 집중된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된 사망 사고로 전 현장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 문제가 화두에 오른 상황이다. 서 대표는 안전 부문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재무 기초체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IPO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SK에코플랜트는 김형근 SK E&S 재무부부장을 신입 사장으로 내정한 상태. 조만간 주주총회를 열고 최종 선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사장 내정자는 SK 주식회사 재무1실장, SK에어가스 대표이사,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매니지

먼트 부문장 등을 거친 ‘재무통’으로 불린다. 때문에 성공적 IPO 추진이란 막중한 임무를 완수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신세계건설은 허병훈 대표를 신규 선임했다. 허 대표는 신세계그룹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 등을 지냈다. 신세계건설은 2년 연속 적자를 내며 수익성 위기에 직면했다. 재무 건전성 개선이 허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이유다.

한 대형건설사 임원은 “부동산이 활황일 때는 수주와 이익 창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영업 출신 CEO가 각광 받는다”며 “그러나 침체기로 돌입하면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돼 재무 안정화와 내실 경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재무와 경영 전략에 능통한 CEO 체제로 바뀐다. 수주를 하더라도 매출 확대 보단 수익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드맨이 복귀한 경우, 풍부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와 방어적인 경영에 힘을 싣는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진리 기자 truth@

## 전국 아파트값, 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상승폭 키우며 11주째 ↑  
전세도 강세...55주 연속 올라

전국 아파트값이 3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 폭을 재차 키우면서 11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 역시 서울 등 전국에서 오름세가 포착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6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01%로 집계됐다. 지난주 0.01%와 같은 수준의 상승 폭을 기록하면서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포인트(p) 더 오른 0.09%를 기록했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가운데 서초구는 0.14%, 강남구는 0.12%, 송파구는 0.14%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용산구(0.13%)와 성동구(0.19%) 역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됐다. 노원구(0.02%)와 도봉구(0.01%) 등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구는 지난주 0.02%보다 0.01%p 더 오른 0.0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06%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의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는 이번 주 0.03%로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은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유지 중인 가운데 저가매물 소진 이후 지역별 선호단지에서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매수문의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0.05%) 대비 0.01%p 내린 0.04%로 나타났다. 지방은 지난주보다 0.01%p 내려 -0.02%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10%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까지 55주 연속 올라 매매시장과 함께 강세를 지속했다. 수도권에선 인천은 이번 주 0.15%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은 0.10%로 나타났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물 부족에 따른 호가 및 거래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역세권 대단지 중 소형가구 위주로 수요가 지속해 상승세를 기록 중”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2086가구 대단지로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2086가구 규모의 주택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 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4.87% 이하, 높이는 최저 4층~최고 30층 이하,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북구 성북동 179-68번지 일대는 200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구역의 지형적 특성, 낮은

사업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행이 어려웠던 주거환경이 지속돼 왔다.

2021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로 구릉지인 지형 특성을 극복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 이번 심의를 통해 구역 지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개방감 있는 중등 배치로 살기 좋은 지역 맞춤형 단지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구릉지에 입지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양질의 주거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비슷한 여건을 가진 다른 정비구역의 사업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행복이 되는  
이런 집을 만드세요

국민이 바라는 집과 도시를 국민의 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민이 바라는 생활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속 만들어 갑니다 ]

[ 임대주택 14만호 운영 ]  
청년과 신혼부부, 은퇴자에게 든든한 내일

[ 아이 키우기 좋은 3기신도시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 긴급급거지원 4만호 ]  
쪽방,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계층

[ 희망의 시작 뉴·홈 ]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등 나에게 맞는 집

#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 스토킹 처벌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연락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 여사의 답이 없어도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 ‘선물 잘 받았나’ 등의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다. 같은 해 9월 12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약속을 잡았다. 두 사람은 다음날 서초구

최재영 목사, 수개월 연락 끝에 김 여사 운영회사 사무실에서 만나 명품 가방 건네며 카메라 촬영

“혐의 적용위해선 거절의사 중요 스토킹보단 명예훼손 더 타당”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났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네면서 손목시계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지난달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

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영등포경찰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건조물 침입 혐의에 해당하는지 수사하고 있다. 13일과 14일 각각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초경찰서에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스토킹범죄성립 요건과 범죄계시각은=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3월 대법원은 헤어진 애인을 3차례 찾아갔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며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 행위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돼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변호사는 “최 목사의 연락이나 방문에 대한 거절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정황이 없는 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대상이 되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촬영 및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게 더욱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이현 기자 cahyun@



입시설명회 몰린 인파 6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중로학원 2025 대입 전략 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이상 기후’에 녹아내리는 지구

앞으로 5년 내 지구 기온이 일시적으로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약 80%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중 적어도 1년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된 지난해를 제치고 새로운 온도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됐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세계기상기구(WM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지구 1~10년 기후 업데이트 보고서’를 발표했다.

WMO ‘1~10년 기후 보고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 1.5도 5년 내 넘을 가능성 80% 달해 ‘가장 따뜻한 해’ 기록 제칠 듯

WMO는 2024~2028년 사이 적어도 한해에 일시적으로 지구 기온이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80%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1.5도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매년 전 지구 지표 근처 온도는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1.1~1.9도 높을 것

으로 예상했다. 특히 WMO는 다가올 5년 중 한해는 현재까지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된 2023년을 제치고 새로운 온도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86%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앞서 WMO는 올해 1월 ‘2023년이 역대 가장 더운 해’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WMO는 미국 국립해양대기청과 영국 기상청 등 6개 주요 국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2023년 전 지구 연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약 1.45도 올랐다고 밝혔다.

코 배럿 WMO 사무차장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평균 온도는 1.5도를 넘어섰다”면서도 “1.5도 목표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온난화를 의미하기에 (현 결과) 목표를 영구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3월 중순부터 4월 하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장기간 이어졌다”며 “따뜻한 남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았다”고 밝혔다.



김채빈 기자 chaebi@

## 탈장 환자 관리 소홀... “서울대병원, 3200만원 배상하라”

〈순배·위자료〉

법 “최초 내원때 신속 대처 미흡” 의료 소송, 유가족에 승소 판결

탈장으로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사망하자, 법원이 최초 내원 시 사후 관찰을 소홀히 한 서울대병원에 대해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재판장 임상은 판사)은 고인 A 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서울대병원이 원고들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1년 1월 초저녁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A 씨는 당시 69세로, 18년 전인 2003년 직장암 수술을 받아 직장 일부를 절제한 이후 오랫동안 탈장에 시달려 온 상태였다.

해당일 역시 컴퓨터단층촬영(CT)

촬영으로 소장 탈장이 확인됐고, 서울대병원은 손으로 탈장을 위원치로 되돌리는 도수정복술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A 씨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자 모르핀 등을 투여했다.

A 씨는 하룻밤을 지새운 뒤 다음 날 오전에 들어서야 서울송도병원으로 전원돼 소장 천공으로 인한 수술을 받게 됐는데, 폐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이튿날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은 최초 응급실 내원한 서울대병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도수정복술을 받은 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 시점이 늦어졌고, 도수정복술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추가 질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이는 장 괴사나 천공을 의심하게 하는 소견”이라면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도수정복술 이후) A 씨 상태를 살펴 장

천공, 복막염 등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뒤 응급수술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수술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A 씨 상태가 호전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면서 “서울대병원이 A 씨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응급수술에 필요한 전원 조치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도수정복술로 천공이 생겼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배척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등에 진료기록 감정을 맡긴 결과 그렇게 불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망한 A 씨가 고령이었고 당뇨 등 기저질환 있었던 점, 당시 서울대병원에 가용상태의 수술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서울대병원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고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고려해 3200만 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박욱 기자 pgot@

## 7년째 소송전 ‘미르의 전설’... 法 “중국법 따라 다시 재판”

“국내법 기준으로 판결 잘못돼”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에 대한 양사간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은 대표적인 1세대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으로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시리즈로

출시돼 2편과 3편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인기를 얻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물적 분할로 설립된 전기아이피가 독단적으로 중국 회사에 미르의 전설 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손을 들었다. 원심 법원은 위메이드·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미리 합의된 비율에 따라 액토즈소프트에 사용료 2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국내법을 기준으로 판결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백익경 기자 ekpark@

# 음성언어 등 특화 AI 교육... 언어공학 전문가 집중 양성



## ③ 한국외대 Language & AI융합학부

“졸업 후 네이버 인공지능(AI) 회의록 관리 서비스인 ‘클로바노트’ 등 음성인식과 자연어처리 등을 적용한 관련 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3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에서 진행된 AI융합대학 Language & AI융합학부 ‘인공지능개론’ 수업에서 만난 1학년 조인성 씨가 앞으로의 진로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어문·상경·인문 계열 대학으로 대표되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올해 최초로 신설된 이공계열의 학부다. 공학계열 학과이기 때문에 학사 학위로 ‘공학사’를 수여한다.

최근 길고 비정형화된 문장을 인식하는 데 특화된 음성인식 엔진, 참석자 목소리 차이를 구분하는 화자 분리 기술 등 자체 음성 AI 기술 등을 적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언어공학’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최윤석 교수(Language & AI융합학부)와 학생들이 AI융합대학 Fablab실에서 프로젝트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외대

**음성인식 엔진 등 언어공학 수요 급증  
45개 언어학과 데이터 등 인프라 강점  
모든 전공과목 음성언어 처리 등 배워  
학생들 ‘네카라쿠배’ 데이터 개발자 꿈꿔  
올해 첫 신설... 수험생들도 관심 높아**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이 같은 ‘언어공학’에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외대의 강점을 살려 올해 신설됐다.

장태업 AI융합대학 학장은 “한국외대 강점은 45개 언어학과가 보유한 언어 데이터와 통번역 데이터, 인적자원 등 풍부한 언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언어공학 기반의 AI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대학”이라고 밝혔다.

단연, 커리큘럼은 ‘언어공학’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집중돼 짜여 있다.

최윤석 Language & AI융합학부장은 “자연어처리와 음성언어처리를 개별적으로 구분하기 보다는 모든 전공과목이 언어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공학점 전체가 자연어·음성언어처리를 위한 학점”이라고 설명했다.

학년별 개설 교과목을 일부 살펴보면, 1학년 때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AI융합대학 AI데이터융합학부 전용 강의실(왼쪽)과 인문과학관 전경.



사진제공 한국외대

자연어처리 및 음성언어처리의 기초가 되는 수학과 프로그래밍 등을 배운다. 2학년부터는 자연어처리 이해, 실용자연어처리, 음성신호처리, 자연어처리 및 음성인식 시스템 설계 등의 커리큘럼이 본격적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일명 ‘네카라쿠배’ 언어공학 또는 데이터 관련 개발자를 노리기도 한다. 네카라쿠배는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으로 꼽는다

는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을 줄인 말이다. 요새 들어서는 여기에 ‘당도’가 붙기도 한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과 금융 서비스 ‘토스’다.

최학부장은 “학생들이 진출 가능한 대표적인 기업 체로는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넥슨, 삼성전자, LG전자, 삼성SDS, SKT, KT 등의 국내 IT기업과 구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이

있다”며 “연구소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삼성글로벌리서치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신설학과인 만큼 수험생들의 관심도 높다. Language & AI융합학부를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왔다는 윤혜원 씨는 “고등학교 때 빅데이터 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고, 공학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려고 노력했다”며 “주요 과목으로는 수학과 영어에 좀 더 공부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Language & AI융합학부 수업에 적응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다.

최학부장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할 때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중 하나는 수학”이라며 “우수한 수학 성적과 함께 이를 어필할 수 있는 세부능력과 특기사항을 준비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인공지능 관련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공개된 소스를 경험해보고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쌓아온 수험생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 “과감한 체질개선... ‘언어와 인공지능’ 둘 다 잡았다”

### 최윤석 한국외대 Language & AI융합학부장

어문계열 중심의 특화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이공계열 신설학과를 만들었다. 올해부터 첫 신입생을 받은 ‘Language & AI융합학부’다. 물론 한국외대의 특징적인 ‘언어’를 강점으로 살렸다. 최근 여러 대학에서 신설되고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AI) 학과와의 차이점 중 하나다.

3일 한국외대에서 만난 최윤석 Language & AI융합학부장은 “외국

어 능력 자체가 경쟁력이던 과거와 달리 자동통번역기, 챗봇 등과 같은 AI 응용시스템이 상용화된 현재, 계속해서 외국어 능력만 기르는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2022년부터 지난 2년간 이를 위해 ‘체질개선’에 돌입했다. ‘어문·상경·인문’과 ‘AI’ 둘 다 잡기 위해서다.

Language & AI융합학부는 AI융합대학 소속이다. 올해 출범한 AI융합대학은 서울캠퍼스에 Language & AI융합학부와 Social Science & AI융합학부,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 Finance & AI융합학부, AI데이터융합학부

2022년부터 새 교육 패러다임 만들어  
외국어 관련 12개 유사학과 통폐합  
60명 수용할 수 있는 실습 강의실 구축  
딥러닝 등 13명 언어공학 교수진 탄탄

등 총 4개로 구성돼 있다.

장태업 AI융합대학 학장은 “신설 학부 정원은 12개 기존 외국어 관련 유사학과(부)를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확보했다”면서 “물론 선뜻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였지만 혁신적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데 구성원들이 모두 동참했다. 수십 년 묵은 학교의 숙원을 해결했다는 평가가 학교 안팎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 목표를 이룬 결과물인 만큼 신설 학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이뤄졌다. 실제로 Language

& AI융합학부는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험 및 실습 전용 강의실을 구축했다. 초거대 언어 모델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버 인프라도 구축 중에 있다.

최 학부장은 “현재 학생 정원에 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학생 수에 맞춰 연차적으로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수진 또한 탄탄하다. 현재까지 총 13명의 ‘언어공학’ 관련 전임교수가 자연어처리, 기계학습, 전산언어학, 음성언어처리, 딥러닝, 컴퓨터수학, 텍스트마이닝, 미들웨어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최 학부장은 “연차적으로 최대 두 분 이상의 전문가 및 전임 교수님들을 모셔 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손현경 기자 son89@

최윤석 한국외대 Language & AI 융합학부장은 “약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험 및 실습 전용 강의실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 AI가 빚어낸 ‘진짜·가짜’ 무경계... 존재는 그럼 어디에?



송석주의



## 김태용 감독의 ‘원더랜드’

스티븐 스피버그의 영화 ‘에이 아이’ (2001)에서 모니카(프란시스 오코너)는 아들을 대신한 AI 로봇 데이빗(할리 조엘 오스먼트)을 숲속에 버린다. 죽음을 목전에 둔 아들이 기적적으로 생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니카의 사랑을 갈구 하도록만들어진 데이빗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무 인형에서 진짜 인간이 된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다시 모니카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23년 전에 개봉한 ‘에이 아이’는 진짜 인간이 되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AI 로봇 데이빗의 여정 그린 로드무비다. 영화는 데이빗의 궤적을 통해 미래 사회에 도래할지도 모를 인간-AI 관계의 한 단면을 그린다. 죽은 사람을 AI로 복원해 산 사람에게 영상 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정의 ‘원더랜드’도 이런 맥락

고인을 AI로 복원한 후 영상통화 “영상통화 상대 과연 진짜일까” 존재의 주체성에 대한 질문 남겨

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화다.

바이리(탕웨이)는 사망한 뒤 고고학자로, 태주(박보검)는 우주비행사로 복원된다. 그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멀리 우주에 산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인간으로 인식하는 AI다. 상대방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듯하다. 죽기 전 AI로 복원될지 말지 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억은 복원된 후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영화가 디테일한 설정을 설명하지 않아서다. 김태용 감독은 인터뷰에서 “다양한 케이스들을 파편적으로 보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생각했다”라며 “좁위협한 방식이지만, 각자 사연들과 감정으로만 표현하자고 했다. 하나의 길을 깊이 가지 못하지만, 다양한 관계의 합을 보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원더랜드라는 가상 세계



영화 ‘원더랜드’ 스틸컷

사진제공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의 허술한 설계 방식을 문제 삼는 건 무용한 일이다. 문제는 바이리가 이 세계의 질서를 교란하는 지점에 있다. 바이리는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다시 엄마와 딸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다. 사막에서 공항으로 차를 몰지만, 바이리는 꼬비우스의 피처럼 사막에 처음 도착한 순간으로 계속 복귀한다.

이과정에서 원더랜드 직원들은 바이리가 엄마와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다.

재회 후 바이리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죽음을 인지한 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직원들은 그의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영화는 앞으로 바이리가 살아갈 세계에는 별 관심이 없거나 있어도 그건 감독의 머릿속에만 있는 듯하다.

특히 이 영화가 영상 통화 속 태주를 다루는 방식은 꽤 문제적이다. 사경을 헤매던 태주가 돌아오자 정인(수지)은 영상

통화 서비스를 종료한다. 영화는 우주 공간에 있는 태주가 어딘가로 추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단순한 시스템의 종료가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가 절망하는 듯한 느낌의 장면이다. 그렇게 AI는 산 사람에게 의해 ‘존재’가 사라진다.

감독은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넘나드는 세계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영상 통화 속 바이리와 태주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것을 떠나 우리는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원더랜드’에 걸려된 질문들이다.

‘에이 아이’는 로봇의 존재 방식을 충실히 묘사한다.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데이빗의 주체성을 여러 각도로 포착한다. 이 같은 주체성이 바이리에겐 아주 조금 있고, 태주에겐 전혀 없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상 세계로 돌아가야만 하는 바이리와 죽은 후 AI로 복원됐다 또 죽어야 하는 태주의 존재. 그들의 마음의 풍경이 ‘원더랜드’에는 부족하거나 없다. 송석주 기자 ssp@

## “푸바오 사랑해 푸에버”... 베스트셀러 1위에

교보문고서 ‘전지적 푸바오 시점’ 인기 “유튜브 콘텐츠로 막강한 팬덤 생겨”

국내 태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사진)의 인기가 여전하다. 사육사 송영관의 ‘전지적 푸바오 시점: 아이러푸 에디션’이 출간과 함께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6일 도서업계에 따르면, 6월 1주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20년 차 사육사이자 푸바오의 작은할아버지 송영관(송바오)의 ‘전지적 푸바오 시점: 아이러푸 에디션’이 올랐다. ‘아이러푸’는 아이바오와 러바오, 푸바오의 줄임말이다.

이번 책은 지난해 출간돼 푸바오를 사랑하는 이들, 푸덕이들의 사랑을 받은 ‘전지적 푸바오 시점’의 특별 한정판이다. 책에는 송바오의 시선으로 전하는 푸바오와의 추억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과정 이 담겼다. 4월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푸바오의 멋진 출발을 응원하는 송바오의 편지도 수록됐다.

아울러 에버랜드 류정훈 사진작가가 포착한 바오패밀리의 생생한 모습도 담겼

다. 송바오가 애정을 담아 만든 토끼풀화관을 쓴 푸바오 사진으로 리커버하며, 에버랜드의 바오패밀리 캐릭터도 담겼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막강한 팬덤이 생기며 예약판매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라며 “푸바오에 대해 애뜻한 마음을 담은 사육사의 이야기에 독자들의 마음이 녹아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책은 여성 독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구매자 성별을 살펴보면, 87.2%

가 여성 독자다. 그 가운데 30대 여성 독자의 구매가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대 30.6%, 20대 10.9%, 50대 6.9%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모건 하우절의 ‘불변의 법칙’과 마티아스 뉘케의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

하여’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4위와 5위에는 각각 ‘흔한남매 16’과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올랐다.

한편 예스24 6월 1주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는 한야나기하리의 ‘리틀 라이프’가 올랐다. 교보문고 순위에선 18위를 기록했다.

이 책은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와 폭력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비밀스러운 인물 주드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송석주 기자 ssp@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1204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관악구 고시 제1992-서고154호(1992.05.25)로 최초결정되었던 신림동 1439-3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의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관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 자치행정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열람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관 악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 제출기관

- 관악구 도시계획과(☎ 02-879-6371), 자치행정과(☎ 02-879-5205)

- 온라인제출

(서울도시계획포털→주민의견제출(열람공고)→주민의견서 작성)

다.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공청사	동사무소	관악구 신림동 1439-3 일원	499.4	증)165.1	664.5	서고154호 92.05.25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변경 A = 499.4 → 664.5㎡ (증 165.1㎡)	· 노후된 신림동 청사를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문화·복지 및 행정 환경이 어우러진 다목적 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함

○ 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신설)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60%이하	300%이하	5층이하	준주거지역

라.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노후가 달라집니다!

정기구독 안내 | 1년 정기구독료 10만원(우편발송료 무료), 날권은 1만원  
정기구독 신청 및 구독 문의 | TEL (02) 799-2680 FAX (02) 799-6700 광고 문의 (02) 799-6727  
이메일 bokyeong@etoday.co.kr 홈페이지 구독 신청 bravo.etoday.co.kr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작곡은 스트레스 배출구... 내 음악이 상흔 어루만지길”



작곡가 김형석

김광석 ‘사랑이라는 이유로’, 김건모 ‘아름다운 이별’, 박진영 ‘너의 뒤에서’, 성시경 ‘내게 오는 길’, 신승훈 ‘I Believe’, 엄정화 ‘하늘만 허락한 사랑’, 임창정 ‘그때 또 다시’...

1990~2000년대 부드러운 리듬으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던 김형석 작곡가. 특유의 감성은 어쩌면 여름 초입과 닮았는지도 모른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 피아노 선율을 곱씹으며 옛 추억에 잠겨 있노라면 귀를 시원하게 때리는 전자음악과는 또 다른 기분을 느끼게 될 테다.

“작곡가의 여름”을 주제로 화보 촬영을 진행했는데 어땠나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잘 어울릴 법한 의상들을 입어서인지 정말 휴가 온 기분이 드네요. 밖에는 비가 오고, 담장에 매달린 넝쿨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고 있자니 평온해지는 느낌이에요.

이 계절에 떠오르는 악상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미디엄 템포 음악이 먼저 떠올라요.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죠. 드라마 ‘눈이 부시게’ OST인 하림의 ‘소풍’ 처럼요. 하림이 목격한 목소리로 ‘인생의 모든 게 아름다웠고 선물 같았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에 또 웃자’고 노래해요. 담백하게 피아노로만 작업했는데, 훨씬 호흡이 섬세해진 것 같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양한 악기와 화려한 효과음이 섞인 노래도 물론 좋지만, 여름만의 따스한 정취를 잘 담았다고 생각해요.

보통 휴가를 어떻게 보내나요?

가족들이 하와이에 있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가요. 워낙 물을 좋아하는데, 바닷가에 멍하니 앉아 있기도 좋지만 해도 중천이 돼요. 산은 오르기가 좀 힘들고. (웃음) 여행 가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최대한 새로운 장소에 집중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특정 경험과 기억을 녹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편이어서요. 본격적으로 영감을 얻고자 하면 건반 하나 들고 혼자 떠나기도 합니다. 더 깊게 내안으로 파고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늘 건반과 함께네요. 촬영장에 도착해서 꺼낸 첫마디도 ‘와, 피아노가 있네?’였어요.

촬영장에 피아노가 있어서 너무 기뻐요. 가장 친숙한 악기거든요. 아버지가 음악 선생님, 어머니가 피아노 선생님이셨어요. 돌아켜보면 최고의 환경이네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자연스럽게 피아노 소리를 들었죠. 데뷔할 즈음(1989년)에는 당시 활동하던 거의 모든 가수의 건반 세션을 맡았어요. 작곡 프로그램으로 노래를 만들 때도 있지만, 중심은 피아노예요. 무작위로 치다가 테마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얻어요.

창작자이기 때문에 일과 삶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작곡 과정이 일이자 쉽네요. 이 닦고 세수하고 잠자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기고요. 어떤 경우든 이걸 소리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습관처럼 고민해요. 반복되는 생활을 하더라도 날씨가 기분, 주변을 지나

가는 사람이 매번 다르니까. 오늘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요. 매 순간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명확한 공정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모든 요소가 다 얽혀 있죠. 쉽지는 않지만 게을리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가끔 스트레스를 받진 않나요?

오히려 작곡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에요. 배출구라고 해야 하나. 감정을 꼭꼭 눌러 담고 있다가 안으로 끓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덜 힘들지 않을까요.

어느덧 작업한 노래가 1500곡이랑 된다고 들었어요.

하하, 그렇게 됐어요. 최근엔 ‘사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옛날 발표했던 음악을 재구성해보고 있습니다. 의뢰를 받아 작업할 때는 근본적으로 내가 원



피아노 무작위로 치다 아이디어 얻어 옛 음악 재구성 ‘사계 프로젝트’ 진행 AI시대, 대중은 예술가 ‘스토리’ 주목

하는 노래가 아니라 가수를 돋보이게 할 노래를 만들어야 해요. 그가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스타일의 음악을 연구해야 하죠. 제 취향과 상관없이요. 하지만 사계 프로젝트는 예전부터 리메이크하고 싶었던 노래를 자유롭게 골랐어요. 첫 번째 트랙은 드라마 ‘상어’의 OST인 ‘천국과 지옥 사이’예요. 보아도 너무 잘 불러줬는데, 백지영의 슬픈 목소리를 만나면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

궁극한 이력을 가졌음에도 AI에 위기감을 느꼈다고요.

한 박람회 주제가 공모전 심사에 참여해 최우수작을 뽑고 보니 그게 AI를 활용해 만든 곡이었어요. 상을 쥐도 되나, 이제 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이

됐어요. ‘도레미’를 배우지 않아도 명령어만 잘 설정할 줄 알면 그럴싸한 노래를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나니. 창작의 문턱이 확 낮아진 거죠. 미래학자가 아니라 선불리예단하긴 어렵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아이디어가 전부인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예술보다는 예술가가 훨씬 주목받을 겁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는, 삶의 결과물을 어떤 스토리로 대중에게 소구할 것인가가 중요하겠네요.

나이 들이 주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들어 삶은 유한하다는 걸 부쩍 체감해요. 여전히 뭔가를 잘 해내고자 하는 욕심은 있지만 좀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죠. 어릴 땐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일했다면 이제는 내 아이와 후배들, 그리고 대중을 위해 작업하려 합니다. 작업의 의미가 확대된 셈이에요.

후배들을 보면 어떤가요?

다들 너무 잘해요. 오히려 배우는 부분도 많고요. 신선하고 감각적인 음악을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워요.

주목하는 아티스트는 누구인가요?

선우정아 노래에 푹 빠져 있어요. 크러쉬, 자이언티도 좋아해요. 보석 같은 존재죠. 요새 양가일과 작업도 해요. 색다른 시각을 접할 계기가 되더라고요. 계급장 떼고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서로를 이해시키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교류라고 생각해요. 가르치고 이끌어준다기보다 같은 업계에 몸담은 이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감을 얻어요. 제 음악과 또 다른 음악이 융화되는 과정이죠.

김형석의 감성, 김형석의 음악을 어떻게 느꼈으면 하나요?

아무리 원망스럽고 미워도 지나고 보면 그런 감정이나 상황은 희미해지잖아요. 결국 추억으로 여기고 용서하게 되죠. 제 음악이 상흔을 어루만져주는 수단이자, 추억과 용서의 계기가 됐으면 해요.

앞으로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감성을 곁집어내야 하는 직업을 가져서인지 꽤 예민한 편이에요. 겉으로는 부처님 미소를 짓고 있지만요.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 미안하면서 죽을 때까지 곡을 쓰다 가고 싶어요. 내가 일흔 살이 돼서도 할 수 있는 음악이 뭘까 고민하죠. 드라마, 영화, 광고, 뮤지컬 등 부지런히 활동하고 재능도 나누고. 그러면 여한이 없겠어요.

글 / 문혜진 기자 hjmoon@·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김형석이 꼽은 여름 노래

- 김광석 - 사랑이라는 이유로
- 김조한 - 날 봐요
- 박진영 - 영원히 돌아서
- 존박 - 굿데이
- 하림 - 소풍



# 물[水] 오르다

산업용 수처리 전문기업에서 **종합환경기업**으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기업에서 **글로벌 환경기업**으로



초순수 생산



토털 수처리 솔루션



폐수재이용/해수담수화



연구 및 기술개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 빌딩 6층, 17층 02-6371-3900 hasco@hscleantech.com

관계사



대양엔바이오주



Water Solution



E CLEAN WATER

# 소설가 꿈꿨던 롯데 창업주 '문학상' 통해 꿈 이룬다

## '신격호 사롯데문학상' 제정

괴테·백석·김유정·염상섭 탐독  
청년 시절 소설가 지망생 신격호  
그림 이름도 소설 여주인공 애칭  
소설·시·수필 3개 부문 공모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할아버지 못다한 꿈 대신해주길"

롯데그룹 창업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은 청년 시절 소설가 지망생이었다. 그는 사후 출간한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를 통해 "알프스 도데의 소설 '마지막 수업'을 읽고 내 처지를 이야기로 꾸민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때부터 이광수, 염상섭, 김유정 등 한국인 문사들이 지은 소설을 무척대고 탐독했다. 백석 시인 시에 심취해 마음의 안정을 찾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후 기업인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의 꿈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 이름을 딴 '문학상'이 새롭게 선을 보인다. 롯데장학재단이 그룹 창립자인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신격호 사롯데 문학상'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문학상 사업 소개를 듣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한국문학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재조명하고 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1회 신격호 사롯데문학상'을 제정하고 나선 것이다. 그가 일군 롯데그룹의 명칭이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속 여주인공 샤로테의 애칭(Lotte)에서 따 왔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신격호 회장의 손녀인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우수한 기성·신진 작가들의 많

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문학가로서 꿈을 꾸던 할아버지의 못다 한 꿈을 대신 이루어 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문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신 사롯데문학상 자문위원장 역시 "이번 문학상을 통해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지원해 문학계의 신선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개최되는 공모전은 대한민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소설, 시, 수필 등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작품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8월 30일 오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후 6시까지다. 응모작가운데 최종 9명을 선정해 10월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은 부문별 대상 3명(각 2000만 원), 최우수상 6명(각 500만 원)이다.

공모전 심사에는 문학 전공 대학 교수, 현직 작가(경력 20년 이상), 문학상 심사위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챗GPT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신격호 사롯데 문학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롯데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모 접수와 기타사항은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롯데재단 관계자는 "신격호 문학상을 통해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기성·신진 작가를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 문학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KISA 김보영 선임연구원 닷아시아 신임 이사로 선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아태 지역 인터넷주소 관리 기관인 닷아시아(DotAsia) 신임 이사로 김보영<사진> 인터넷주소정책팀 선임연구원이 선출됐다고 6일 밝혔다.



닷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대표 도메인(.asia) 관리·운영 및 아태지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청년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 아태지역 인터넷 발전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2007년 설립된 홍콩 소재 비영리법인이다. 2024년 현재 정회원으로 25개 아태 지역 국가도메인 관리기관이 있으며 아태 지역 아이피주소 관리기구(APNIC), 아태 지역 침해사고대응팀 협의회(APCERT) 등 9개 국제기구가 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보영 닷아시아 신임이사는 이사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얻어 선출됐다. 김보영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3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터넷 현안 및 인터넷 발전 전략 수립에 참여하게 된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서울 여성자립준비청년 지원 위해 애경산업, 1억2000만원 물품 기부



애경산업이 5일 서울시, 사단법인희망을 나누는사람들과 함께 서울시 여성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박스 기부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전달식을 통해 자사 브랜드 치유비의 여성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1억2000만 원 상당의 희망박스 500상자를 서울시에 기부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을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여성 자립준비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후원된 물품은 서울시 거주 중인 여성 자립준비청년 5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박진우<사진 왼쪽> 애경산업 경영지원부문장 과 김선순<가운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 초등 금융교육 일일강사 나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임직원 재능기부 일환 작년 이어 올해도 20여명 참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일일 강사로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진행된 강의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원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의 종류와 역할을 설명하고 계획적 소비와 저축을 위한 용돈 관리의 중요성을 교육했다. 수업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동영상, OX퀴즈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수업에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금융환경 변화와 청소년 대상 금융범죄 우려 등으로 학교를 통한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1사1교 금융교육'을 기반으로 연례대와 학사 일정을 고려한 다양한 학교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교육을 통한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임직원이 일일 강사로 학교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강사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감독원

방문해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 전문가로서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14명, 올해 5-6월 중에는 20여 명의 임직원이 학교를 방문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금융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 이한준 LH 사장, 하남교산 첫 공공주택 착공단지 찾아

### "주택시장 안정 위해 수도권 중심 신속 공급"

LH는 이한준 사장이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의 첫 공공주택 착공예정지인 A2블록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장이 전날 방문한 하남교산 A2블록은 총 1115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진행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가 토지,

민간사업자는 지분참여로 건축비를 투자해 수익과 리스크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와 브랜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하남교산 A2블록은 지장물 철거와 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12월 착공할 계획이다. 입주는 2027년 7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한준(오른쪽 두 번째) LH 사장이 5일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A2블록을 찾아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LH

는 무엇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A2블록은 교산지구에서 최초로 착공·입주하는 상징

전보규 기자 jbk@

## 스타벅스, 환경의 날 맞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한화진(왼쪽 두 번째) 환경부 장관과 이상일(세 번째) 용인시장이 스타벅스 파트너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코리아

스타벅스 코리아가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6일 스타벅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5일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한 총 35개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을 수

여했다. 스타벅스는 이날 기업으로서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 표창 영예를 안았다.

스타벅스는 그동안 환경부의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 동참을 통해 다회용컵 이용 혜택을 지속 강화해 2007년부터 2024년 4월까지 17년간 일회용 컵 1억5000만 개 사용을 줄였다. 또 전국 매장에서 '일회용 컵 없는 날'을 진행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

려하고 2026년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텀블러 세척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스타벅스가 자체 제작한 '커피박 트레이'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국내 1호 순환자원 사용제품인 증도 받았다.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고객 맞춤형 친환경 정책을 여러모로 진행해 고객 참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ij42@

## 부음

- ▲김순식 씨 별세, 김영재 씨 남편상, 김태안(삼성전자 부장)·태훈(금융감독원 팀장)·태원(양평전자과학고등학교 교사) 씨 부친상, 조단비(감일초등학교 교사)·정재은(전 SK네트웍스 과장)·이유리(하남 은가람중학교 교사) 씨 시부상 = 6일,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30분, 052-272-1111
- ▲박경자 씨 별세, 강주석(농협중앙회 경남본부 농촌지원단장) 씨 장모상 = 6일, 경남 진해 늘푸른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8일, 055-551-8000
- ▲최기락 씨 별세, 채옥자 씨 남편상, 최재영(사업)·민구(사업)·재혁(전 동작구의회 구의원)·성현(사업) 씨 부친상, 윤현주·김영미(한국교육개발원 전문위원)·주사랑 씨 시부상 = 6일, 익산병원장례식장 추모특실 4층, 발인 8일 오전 9시30분, 063-851-9444

문학의 쫓

1936년 1월 20일 영국 왕 조지 5세가 사망했다. 장남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승계했으나 미국 출신 이혼녀 윌리스 심슨 부인과의 스캔들로 인해 왕위를 포기하고 그녀와 결혼했다. 이로써 같은 해 12월 11일, 차남 앨버트(요크 공작)가 왕위에 오



서정남 영화평론가·계명대 교수

가됐다. 유소년기에 그가 겪은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에 대해 왕실의 엄격한 분위기는 누구에게도 털어놓거나 위로 받을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사 람들 앞에서 위축되고 말을

더듬게 됐다. 영화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 캐릭터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촉진 하며 성장 드라마를 완성한다. 그는 왕이 되어만 하는 사람이었다. 그 운명에 맞서 자신과의 싸움을 힘겹게 펼친다. 그는 나약한 인간이었지만 왕실과 국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기도 했다. 결국 언어치료사라이 오넬 로그의 도움으로 언어장애를 극복 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왕으로 거듭난다.

그는 대중 선동의 달변가 아돌프 히

〈아카데미 수상작 ‘킹스스피치’, 톰 후퍼 감독〉

말더듬 이겨낸 ‘국왕의 책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국의 국왕이 될 수 없다는 불신이 있었다.

그런데 에드워드의 스캔들로 인한 왕실의 권위 추락과 갑작스러운 퇴위로 대영제국의 분열 위기가 고조됐다. 한편으로는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전쟁 위협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조지 6세에게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왕실을 만들고 권위를 이어가야 하는 것에 더해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해야만 하는 책무가 부과됐다.

영화 ‘킹스스피치’는 2022년 세상을 떠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부친인 조지 6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데이비드 세이들러 각본에 톰 후퍼 감독, 콜린 퍼스의 명연기로 아카데미 주요 4개 부문을 석권했다. 앨버트는 병약한 체질로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 아버지인 조지 5세의 혹독한 훈육방식과 유모의 은밀한 학대가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왼손잡이, 안짱다리 교정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로 열등감과 심리적 고통이 배

틀러에 맞서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총동원 체제를 발동해야 했다. 군주의 권위와 정통성을 드러내고 국민의 동참을 이끄는 담백한 연설을 한다. 그는 독일의 런던 대공습 시기에 버킹엄궁을 떠나지 않았고 왕비와 더불어 죽을 위험을 넘기기도 했다. 전쟁 시기 내내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저항의 상징이자 구심점이 돼주고 윈스턴 처칠과 더불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 영화를 통해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다. 국왕이나 대통령은 한 나라의 헌법기관이며 국가 제도의 정점이다. 따라서 최고 지도자가 행하는 모든 발언은 한 개인의 사적 발화행위가 아니라 그가 가진 권력과 리더십의 공적 체현이다.

그만큼 엄밀함과 정제된 언어표현이 요구된다. TV와 같은 오늘의 시각 영상매체 앞에서는 몸짓언어 역시 공감각적으로 어필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진중해야 한다.

의 신선이 된다고 하는 선단(仙丹)의 제조법을 배워서 만들어 먹은 뒤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닭과 개도 이 선단을 먹자 모두 함께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 시사상식 /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

‘다중적 자아’라는 말.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을 일컫는다. 페르소나는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이라는 뜻의 라틴어.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말하고, 이성과 의지를 갖고 디지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한다.

예컨대 회사나 학교 등 본래의 일을 할 때,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SNS 등 온라인으로 소통할 때 등 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이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투데이, 말투데이

☆ 비말라 매클루어 명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서 만족감을 얻어라. 그것이 가장 큰 자산이다.”

미국의 요가와 명상전문가다. 인도의 보육원에서 시간을 보낸 그녀는 경험을 살려 쓴 책 ‘유아 마사지: 부모를 사랑하기 위한 핸드북’을 출간했다. 그녀가 만든 국제 유아 마사지 협회(IAIM)는 현재 70개국 이상에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52~.

☆ 고사성어 / 계견승천(鷄犬昇天)

다른 사람의 권세에 빌붙어 승진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닭과 개도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된다는 뜻으로, 한 사람이 출세하면 그 집안에 딸린 사람들도 덩달아 덕을 보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다. 신선전(神仙傳) 회남왕편(淮南王篇)에 나온다. 한(漢) 나라 때 회남왕 유안(劉安)은 팔공(八公)이라고 불리는 신선에게 먹으면 장생불사(長生不死)

이슈&인물

30년 교육현장서 잔뼈 굵은 김병진 교육평가연구소장

“의대증원에 착시...사실상 250여명”

“입시에서의 변화는 굉장히 다층적인데, 의과대학 증원 이슈에 대해서는 대부분 표피적인 부분만 다루고 있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대로 취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서초구 이투스 에듀 사옥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1500명 증가’라고 통으로 생각하기보다 학생 본인들이 해당하는 전형에서의 증원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강의를 시작해 19년간 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했다. ‘Easy to Study’로 시작한 이투스에서 2017년부터 교육평가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의 모집인원은 전년 대비 1497명 증가했다.

김 소장은 “1497명이라는 숫자 안에는 지역인재전형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학생들이나 특정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숫자가 온전히 해당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증원 규모는 훨씬 적기 때문에 1497명이라는 규모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이어 “지역인재전형 등 숫자를 다 빼고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만 생각해보면 250여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서 “1500명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와 250여 명이라는 실질적인 규모를 생각했을 때는 체감이 크게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의대 입시, 예측 못하게 돼 혼란 커져”= 김 소장은 의대 증원 규모보다 증원 과정에서의 절차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나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입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던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늘어나면서 의대 진학이 유리한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지방유학’ 현상에 대해서도 문외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려운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실제로 지역인재전형을 위해 이사를 갔을 때 정말로 유리하겠느냐는 문의가 많다”면서도 “지역인재전형으로 의대에 진학하려면 지금은 해당 지역에서 3년간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총 6년을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해 사실상 초등학교 때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수준의 문항,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최근 이투스 에듀 사옥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야 공교육이 산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평가원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해 50~60%대 오답률의 문항 수를 늘렸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번에 확실하게 풀어내는 능력을 길러내는 게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킬러문항 배제로 오답률 60%대 문항 늘어나”= 김 소장은 “수능은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변별력 형성은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서 “예를 들면 난이도 100짜리 문제는 없어졌지만, 난이도

지역전형 빼면 정시 몇백명 늘어나 교육과 달리 입시는 여차피 성적순 교육·입시 갈라야 공교육 정상화돼

80인 문제를 2문제만 내다가 4문제로 늘리면 문제 풀이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럼 그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구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수능에서도 60%대 오답률 문항을 연속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학생들이 문제를 다 못 푸는 상황이 많이 생겼다”면서 “향후 학생들은 풀 수 있는 문항을 한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 푸는 순간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현재의 입시 구조가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수시 전형을 강조하면서 수능 최저등급기준만을 맞추기 위해 공부하는 현상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교육의 정상화’가 입시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입 전형을 운용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을 선정해 재정 지원을 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입 공정성과 책무성 확보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완화 △고교교육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 제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해 높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최대 7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준다.

김 소장은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고, 입시에 대해 인정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이들 대부분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입시와 관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 기관은 입시를 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공교육이 정상화된 모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부터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지 않자 보니 입시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교육과 입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김 소장은 “교육은 줄을 세우면 안 되지만, 입시는 줄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교육과 입시를 분리하지 못하니 수능에서의 킬러문항 배제가 곧 변별력 약화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잔인한 시험은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줄을 못 세우는 수능”이라고 강조하면서 “작년 수능 사회탐구 과목 ‘생활과 윤리’의 경우 백분위 점수가 이론적으로 13개가 있어야 하지만, 단 2개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즉 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돼 한 문제만 틀려도 바로 백분위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다.

김 소장은 “수능에 대해 쉽나 어렵나 문제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더 발전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정영주 기자 oiljung@

##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주한 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로 한국과 중국 간에 갈등이 고조되던 때 베이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한국 경제를 만든 이한마디'의 중국어판 '한국기업인 100인 100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만난 한 중국 기업인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가 크게 당할 거라고 관측했다. 일본에서 창업했으니 반일 선동도 되고 한국에서 커졌으니 한국에 대한 보복도 된다고 했다.

기업 하나를 두들겨 두 나라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였고 실제 그 후에 벌어진 상황은 롯데에 정말 가혹했다. 112곳에 달하는 롯데마트 매장과 백화점 5곳, 12개 극장, 5개 지역의 롯데홈쇼핑, 롯데칠성 공장이 사실상 강제로 문을 닫고 결국은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손실액은 10조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날벼락이었다.

우리 기업이 나라 밖에서 얻어맞고 있을 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한마디 항의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나라 정부인가 싶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는 최근 일본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준공했는데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 2000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반면 한국 상황은 어떤가? SK하이닉스는 2019년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기로 했는데 착공이 3년이나 지연됐다. 각종 환경평가, 시민단체의 제동에 지방정부의 몽니까지 겹쳐 아직도 터뒀기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용수나 전력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없다. 세액공제가 있을 뿐인데 이나마도 연말이면 시효가 종료된다.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황제세, 노란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하는 게 서러울 지경이다. 중앙에도 지방에도, 입법에도 행정에도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인야후 사태가 터지자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 논현로

#### 권오용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당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던 야권이 뿔뿔 뿔쳐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원내 제3당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는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갑진국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죽은 지 100년도 넘는 이토 히로부미까지 거론한 것이 원내 제1당의 대표다. 일본 정부가 3년 전부터 라인의 지배구조변화를 물밑에서 추진해 왔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아예 없었다.

나서야 할 때는 머뭇대던 정부가 올해도 대기업 집단 88개를 지정했다. 자산 5조 원이라는 허들이

2009년부터 15년 동안 바뀌지 않아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의 기업까지도 경제력 집중 역세의 규제를 받게 됐다. 대기업이 됐다는 자부심은 잠깐이

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41개 법률, 274개의 규제가 새로 떨어진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총자산 566조 원, 매출 358조 원의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규제를 자산 5조 원, 매출 1조 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같이 받게 됐다.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4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갔다. 그래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원래 30개 정도의 재벌에 대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도 퇴색됐다. 우리 기업이 받아야 할 대접을 못 받고 오히려 국내에서 외국기업에 역차별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할 때는 머뭇거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나서서 바람에 안에서 도 밖에서도 고초를 겪고 있다. 이래저래 한국 기업은 서럽다.

### 사드·라인사태 목소리 못내는 정부

### 국내선 대기업집단 규제 등 단호해

### 안팎서 고초 겪는 韓기업 안타까워

### 한 톨



### 버려진 도심 속 '양심'

터져있는 음식물 봉투, 식품용기, 심지어 텐트까지... 서울의 한 거리에 아무렇게나 투기한 쓰레기들이 지나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는 수거 업체가 바로 가져가지 않아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올라가 악취가 발생하고 벌레가 생기는 등 미관과 위생상 좋지 않다.

불법 투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각 지자체에서 상습 쓰레기 적

치 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상인 및 주민들에게 제도 활동을 벌이며 단속에도 나서고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곳곳에 현수막 등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하지만 안내문 아래에 버섯이 쓰레기를 버려놓기도 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도 나온다.

정해진 시간, 지정 장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은 '양식'이다. 양식을 지키는 시민들이 더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사설

## '1.5도 확률 80%' 기후 경고에 親원전 대응을

지구촌이 달아오르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5일(현지시간) 2024~2028년 지구 연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인 1850~1900년 기준선보다 섭씨 1.1~1.9도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5년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 상승 폭이 1.5도를 넘어서는 해가 적어도 한번 나올 확률이 80%라고도 했다. 2017~2021년 20%에서 2023~2027년 66%까지 상승한 확률이 또 경중 뛰었다.

기온 상승 폭 1.5도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한 제한선이다. 위험수위인 것이다. 지난해 연평균 표면 기온은 1.45도 높아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간 지구 평균 기온이 1.63도 상승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구를 가지고 러시아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후 재앙이 시작될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인도는 50도 안팎의 폭염으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와이 마우이섬은 뜨거운 대기가 촉발한 산불로 뒤덮였다. 리비아는 열대성 폭풍이 동반한 폭우로 1만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페루-에콰도르 지역 어획량 감소, 브라질 아마존 강둑과 집단 폐사 등도 해수 온도 상승이 원인이다. 한국도 기후의 아열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구촌을 식히려면 무탄소 전원 확대가 시급하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더 큰 노력을 시급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수조 달러의 경제적 비용과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 생물 다양성에 대한 광범위한 피해 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WMO는 경고한다.

한국도 적극 임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은 친(親)원전이다. 프랑스, 영국은 각각 원전 14기, 9기를 새로 짓기로 했다. 미국, 일본 정부도 원전 확대에 힘쓰고 있다. 자국 동해안을 원전 단지로 덮고 있는 중국은 두말할 것도 없다. 'K-원전'의 기술 강점까지 가진 우리는 세계적 조류를 타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원전 확대는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대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역시 원전만 한 게 없다.

산업부가 최근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에 2038년까지 신규 원전 3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을 담은 것은 크게 봐서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가장 좋은 원전보다 외려 태양광·풍력 확충에 큰 방점을 찍은 실무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공감하기 어렵다.

2030년까지 태양광 등 설비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실무안의 핵심 골격이다. 신재생 에너지 여건이 주요 경쟁국에 비할 바 없이 열악한 국내에서 그 많은 신재생 설비를 어디에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가. 경제성은 있다. 중국만 좋은 일 되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원전 강국 입지를 강화할 입법 지원도 서두를 일이다.

## 승자 없는 'T커머스 땅따먹기'

네모난 사각형 공간 속에 1~8 숫자가 쓰인 구역이 있다. 최종 8단, 꼭대기에 오르면 돌을 던져 내 땅을 확보한다. 어릴 적 한 번쯤 해봤을 추억의 놀이 사방치기다. 사방치기는 흔히 '땅따먹기'라 부르기도 한다. 한정된 공간 속에 돌을 던져 내 땅을 확보하는 이 게임이 최근 T커머스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채널 신설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제로 열린 12차 국민통합위원회 전체 회의의 결성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도 높여준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역력하다. 엔데믹 이후 홈쇼핑업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새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송출수수료 문제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 우려다. 특히 시장 규모가 작은 T커머스업계의 우려가 더 크다.

데이터홈쇼핑업계에 따르면 작년 데이터홈쇼핑 단독사업자(SK스토아·KT알파쇼핑·신세계라이브쇼핑·W쇼핑·쇼핑엔티)의 매출액은 1조 15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83억 원으로 52.2% 급감했다. 이들의 취급액 역시 2.4% 떨어졌다. T커머스 시장은 쪼그라드는데, 신규 채널 진출 소식에 '땅따먹기'라는 불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신설보다 기존 T커머스를 활용하는 안을 고

### 노트북 너머

#### 유승호

생활경제부 기자



민해야 한다. 현재 T커머스 10개 채널은 사업 재승인 조건에 맞춰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적으로 70% 이상 편성 중이다. 의무편성 비율이 낮지 않은 만큼 기존 T커머스만으로도 소상공인·중소기업 판로 확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소상공인 상품 판매를 확대할 경우 T커머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T커머스는 TV를 통해 상품을 결제·구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TV홈쇼핑과 비슷하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이다 보니 전체 화면의 50% 이상을 데이터로 구성해야 하고 녹화방송만 허용해야 한다. 최근에 신세계라이브쇼핑이 방송화면을 자동으로 확대하는 예약 서비스를 도입했다가 화면 비율 규제 위반이라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T커머스 신규 채널 입장에서 당장 새로운 매출이 발생할지 모른다. 하지만 업황은 이미 내리막길이다. TV를 보지 않는 이른바 코드킹도 심화해 미래는 어둡다. TV 채널이란 한정된 공간에서 T커머스업계는 지금 생존기다. 땅따먹기의 결말이 '공멸'이 아니길 바라본다.

peter@

###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석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국민함께  
프로젝트



함께 크는  
희망

# 희망의 다른 이름은 국민이 아닐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꾸는  
가족들과 함께

좌절을 딛고  
새로운 기회에 다시 가슴 뛰는  
청년들과 함께

각박해진 세상이라고 하지만  
묵묵히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장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은  
커져갑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인 '국민'  
KB가 '국민'과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Korea Better**  
KB금융그룹



♪ KB금융그룹 유튜브 채널에서  
박은빈이 부른 '꿈따리 사바라'를 감상해 보세요

